•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Buddhanews.com

제 692 호 구독신청 02)2004-8212

불기 2552년 8월 13일(음력 7월 13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독도 지키는 소중한 자료로"

2 독도 고지도 기증한 정각 스님



"거짓 나 죽이고 참나 살려"

4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현장



"수행으로 에너지 충전"

5 서울 보리선원 벽곡 수행현장



"해법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7 선지식-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인스턴트 해탈' 수련문화 위협"

불교학연구회 워크숍서 우혜란씨 '종교영역 상품화'에 일침

웰빙 열풍과 함께 '기 신드롬'이 확산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기공과 관련해서는 단월드, 수선재 등 기업화된 수련단체가 등장했고, 서구에서 아바타 코스를 수입한 마음선원, 동사섭 등이 출현했다. 단(丹), 선(仙), 요가 열풍에 이제는 불교계와 지자체도 나서 '명상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에 나타난 전통 수련 · 종교문화의 상품화가 불교 등 전통종교와 수련문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계가 웰빙 붐에 편승해 '전통'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장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일침을 던진 이는 우혜란(가톨릭대 강사)씨다.

우씨는 8월 9~10일,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신자유주의와 불교'를 주제로 화순 유마사에서 개최한 하계워크숍에서 발표논문 '신자유주의와 수련문화의 상품화'에서 최근 한국의 전통종교 · 수련문화가 어떻게 소비문화에 흡수돼 상품화하고 파편화 됐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기수련 문화 등 비제도화된 종교영역을 시작으로 종교문화의 상품화가 진행됐다"고 말하며 "2000년대 들어 신자유의적 지역정책 여파로 재정자립에 고민하는 지자체들도 전통 수련 문화의 관광상품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강화군이 주최한 '제1회 마니산 기축제'와 경북 문경시가 올해 안에 완공할 '명상웰빙타운' 등이 그 예다.

범어사와 부산시가 2005년부터 추진했던 '선문화체험타운' 등을 근거로 우씨는 "불교계도 지자체와 협력해 명상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지자체 등이 추구하는 것은 '명상 복합쇼핑몰' 형태다. 이는 신자유주의 특징인 소비주의가 종교영역에 침투한 현상으로, 종교전통에서 제시되던 세트메뉴가 소비자 선호에 맞춰 아이템별로 분화된 것"이라 지적했다. 우씨는 단기간 자기완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아바타 등을 '인스턴트 해탈'이라 표현하며, "단월드, 동사섭, 명상월드 등 단체들이 불교 명상 전통을 심리치료 요법의 하나로 축소시키고, '해탈'을 상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최근 불교계도 '인스턴트 해탈' 트렌드에 편승해 명상치료학회와 불교심리치료학회 등이 창립됐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과 같은 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불교 명상전통이 일종의 치유요법으로 재해석되고 축소돼 파편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불교계 내부의 우려는 듣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은 "상품화, 파편화가 아닌 대중교화 방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명칭부터 불교를 연상시키는 '붓다필드'라는 수련단체를 예로 들며, "불교계가 명상시장에 나선 것은 불교 명상법의 왜곡을 막는 호교(護敎)적 작용과 사이비 단체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물밑에 있던 수련문화에 대한 논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하계 휴가 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종교편향 종식을"

全 종단 결집 범불교도대회 개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종단과 불교NGO, 신도단체 대표 90여명이 참여한 범불교비상대표자회의는 8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모여 '오만 · 독선 이명박 정권 규탄, 종교차별 종식 범불교도대회'를 8월 23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범불교비상대표자회의는 ▲종교편향 종식 '범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종교차별과 갈등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어청수 경찰청장 등 관련 공직자 파면 등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종교편향 대응기구로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 봉은사 등 주요 사찰에서는 규탄법회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등 종교편향 종식을 요구하는 불교 각계의 성명발표와 항의집회도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대학생 불자 다 모여라!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회장 김정현)는 8월 7~10일 경남 진주, 남해, 하동일대에서 "2008 대불련 여름대회(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대학생불자들이 한곳에 모임으로써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국의 150개 대학에서 250여 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학생들이 7일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입재식을 갖고 뜨거운 3박4일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재완 기자

社告

메주와 첼리스트 禪詩를 말하다

–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출간기념 돈연 법사 강연회



<황금털사자의 미미소>1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에서 고암스님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선사들이 남긴 깨달음의 원음을 선시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선시 해설서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불교계는 물론 문단에서도 선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출간을 기념해 돈연법사(사진)를 초청해 선시 특강을 갖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시강연회

◆강연
주제: 21세기 한국 문학에서 선시의 자리
강사: 돈연 법사(시인, 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인사말씀
송준영 시인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저자)
◆특별 연주
첼로: 도완녀(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참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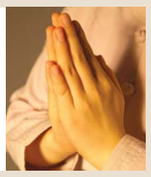
◆동참금:1만원
◆계좌 입금 후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에이치비엠씨)038-25-0008-365.
(농협,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053-01-269050.
–입금 후 전화 하실 곳
현대불교신문사 (대표)02-2004-8200/(담당자) 2004-8233.
◆일시: 2008년 8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예정)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취재기자 모집

현대불교신문사가 취재기자(신입)를 모집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불교계에서 일할 인재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모집부문 : 취재기자 ◆모집인원 : 신입 0명
◆지원자격 : 대졸자 이상 ◆접수기간 : 2008년 8월 15일(금)까지
◆문의 : 이메일로만 접수 (전화문의 사절) cgseo@buddhapia.com
◆제출서류 –이력서(자유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상단에 연락처 명시)–자기소개서
–메일 제목에 [취재기자 지원_이름_연락처] 순으로 명기.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부처님 제1공양
108참회 건강. 청다향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편백, 솔, 쑥, 산요초의 황금빛 향기의 핵을 증류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영가등



주름등



왕생극락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우리땅 독도 지키는 소중한 자료되길"

독도 고지도 40여점 수집·기증한 정각 스님

"한국불교의례를 중심으로 불교 관련 고문서와 문화재 자료를 모으다 보니 독도와 한국해가 기명된 지도 자료를 함께 수집하게 됐죠."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정각 스님(원각사 주지)이 소장한 독도 · 한국해 표기 지도 한 점을 길종성 대표(독도사랑회 · 시의원)에게 처음 기증한 때가 올해 초다. "스님이 부처님 말씀 담긴 경전이 필요하듯 이 지도는 독도지킴이 활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 전부였다.

현재 옥션 경매가 1500만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자료로 인정받는 일간지 '르 프티 저널(Le Petit Journal)'은 프랑스의 대중지로 인지도 높은 일간신문이었다. 1894년 9월 3일자 별지에 실린 삽화 형식의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을 동해상에 분명히 표기한다. '한국과 일본, 동중국의 지도'라는 제목으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I. Ouen-San)'라고 기록된 것이다. 당시는 청일전쟁 때로 한국은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세력 다툼 속에 표적이었다.



정각 스님과 '우산도'로 표기된 1894년 프랑스 지도(오른쪽).



스님이 최근까지 수집한 독도 · 한국해 표기 지도는 약 40여점으로 1785년 영국의 지도회사 토머스키친 사에서 제작한 아시아 지도뿐만 아니라 1835년 미국 토머스 브래포드 사에서 제작한 아시아 지도에도 '한국해'로 표기돼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총 40여 점의 지도를 독도사랑회에 후원했고 9월 경 고지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님은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지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료 자체가 지닌 의미 보다 시대의 조류가 원하는 가치일 것이다. 더욱이 한국인이 원하는 바이기에 불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미약하나마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인 공통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에 위치한 외로운 돌섬 독도. 우리의 땅이라고 믿으며 의심해본 적 없는 독도가 분쟁에 휘말린 현재, 스님이 소장한 고지도가 전하는 사회정신의 치유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과거를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역사속 독도의 존재를 알리고 독도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독도의 귀속 처에 대한 '한국령' 기술을 '주권미확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만행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때가 7월 22일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7월 30일(한국시간) 독도의 공식명칭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영유권은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독도는 소용돌이 정국의 무대가 되고 있다. 가연숙 기자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108년 만에 東進한 세계철학대회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은 필로소피아(Philosophia)를 대신해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철학(哲學)'이란 말은 일본인 니시아마네(西周, 1829~1897)가 만들었다. 니시는 '철인을 희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의 '키데츠가쿠(希哲學)' 과목명을 사용했고, 1874년 <백인신론(百人新論)>에서 '키데츠가쿠' 대신 '데츠가쿠(哲學)'라는 말을 썼다.

철학이라는 말을 만들고, 빠르게 서양철학을 유행시켰던 일본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철학대회가 열렸다. 일본의 독도침탈에 이어 중국까지 이어 도를 넘보는 요즘, 중국 · 일본을 제치고 동양 최초로 개최한 제22회 세계철학대회는 폭염 속 시원한 소나기 같은 사건이다.

1900년 프랑스 파리의 제1회 세계철학대회 후 5년마다 보스턴 · 옥스포드 · 하이델베르크 등 서양을 맴돌다 108년 만에 동양을 찾은 대회를 두고 학계는 '철학, 108년만의 동진(東進)'이라 표현했다.

이번 대회는 불교 · 유교 · 도교 등 동양철학이 독립분과로 채택되면서 동양철학 비중이 높았다. 그동안 동양철학은 물론 한국 사상은 학계에서 비주류였고, 불교와 유교도 '종교학'의 분야로 취급됐을 뿐 철학으로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는 함석헌 등 한국 사상가들과 불교 등 동양철학을 세계에 알린 귀중한 기회였다.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대에서 '오늘의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열린 대회는 104개국 2600여 철학자들이 54개 분과에서 478개 주제 토론을 펼친 철인(哲人) 올림픽이었다.

불교철학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33편. 일본 12편, 한국 6편 등 순이었다. 일본에서는 스에키 후미히코 박사(도쿄대) 등이, 한국에서는 고영섭 교수(동국대) 등이 발표했다.

한국학자의 6편 발표논문에는 원효 · 지눌 · 성철 스님 등 한국 고승에 대한 발표가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6편과 12편이란 발표 논문 수는 차치하고, 한국학자의 전체 발표논문 166편 중 불교철학 분과 논문 6편은, 일본학자 57편 논문 중 12편이 불교철학 논문이었다는 사실과 심하게 비교된다.

대회 준비 단계에서 불교학계에 홍보가 덜 됐을 수도, 불교학자들이 다른 학회와 연구로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회에서 만난 한 교수의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할 역량을 갖춘 불교학자가 드물다"는 말이 좀 더 신빙성 있게 들린다. 제22회 세계철학대회가 막을 내린 지금, 불교학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다시 생각할 때다.

北 조불련 새위원장에 심상진 부위원장 선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에 심상진 부위원장(사진)이 선출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은 8월 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앞으로 팩스를 보내 "지금까지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던 심상진(법봉 스님) 대선사님이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었음을 알린다"며 "앞으로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불사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불련 심상진 신임 중앙위원장은 1944년 양강도에서 출생, 김일성사범대를 졸업했으며 문화재보존총국 부장을 지내다 1974년 불교학원을 졸업한 후 조불련에 입문했다. 1989년 조불련 서기장, 2001년 조불련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범민련북측본부 중앙위원도 겸임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종교편향방지 입법협의체 추진"

총리실, 조계종 종교차별 시정 요구 성명서에 회신

종교차별 시정과 관련한 조계종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회신을 보내왔지만, 조계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국무총리실은 8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앞으로 발송한 '대한불교조계종 성명서에 대한 회신'에서 ▲종교편향행위 공직자 엄중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를 약속했으나, ▲촛불시위 관련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공문에서 총리실은 종교편향방지 입법과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의 검문과 관련된 관계자에게는 '담당경찰관 전보조치,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계고, 종로경찰서장 서면경고'등의 징계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혀 경찰청장 해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승원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기대에 미흡한 책임감 없는 답변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검문과 관련, 8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계에 사과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종교편향금지법으로 '성난 佛心' 달래나?

與, 입법추진 팔 걷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 대한 경찰의 차량 검문 등으로 불교계가 대규모 시국법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종교편향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에 따른 불교계의 반발을 의식,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먼저 총대를 맸다.

이 의원은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편향적 행동을 못하도록 제도화 해달라"며 이를 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종교편향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의 처벌 조항까지 확인하고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도 같은 날 대통령 변호에 나섰다. 조 의원은 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타 종교, 특히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써왔는데 오해 받을 만한 일들이 생겨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불교 발전과 역사종교 상생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들을 평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이 7월 30일 불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종교편향금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도 정부를 향한 불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풀이된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남산당 정일 대선사 열반 4주기 추모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남산당 정일 대선사의 열반 4주기
추모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수희 동참하시어 함께 자리하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극빈자는 이슬 맺힌 갈대숲이 좋다
홀연 한 가닥 시광이 온 대지를 투과하니
만년 전사 부처님 열반이 드러났네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슬픔과 같이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 정일 대선사 오도송 -

◆일 시 : 불기 2552년 8월 23일
(음, 7월 23일) 오전 10시

◆장 소 : 삼각산 보광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6-19)

◆연락처 : 종무소 02)993-3808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선학원 삼각산 보광사 · 남산문도회 문도일동 합장

‘음성공양’ 나선 현역 장병들

55사단 소속 중창단 ‘유아독존’ 지리산명상기행 공연 동참

위문공연만 받는 줄 알았던 현역 장병들이 교계행사의 축하공연에 나서 화제다.

55사단 소속 현역장병으로 구성된 중창단 ‘유아독존’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가 8월 1~3일 지리산 일대에서 개최한 ‘2030 지리산 명상기행’에 동참했다. 이들은 2일 저녁 황석산수련원에서 열린 축하공연에서 불자가수 강혜윤 양과 함께 찬불가 ‘너와 나’ ‘행복’ ‘오늘은 좋은 날’을 비롯해 ‘멀어져’ ‘비처럼 음악처럼’ 등 가요를 불러 흥을 돋구었다.


유아독존 멤버들인 박준규·김형래 병장, 김민석·이도현 상병(왼쪽부터).

‘유아독존’은 2004년 55사단 봉화사에서 열린 찬불가 경연대회 때 1등한 중창단 모임이다. 현재는 박준규 · 김형래 병장, 이도현 · 김민석 상병이 활동 중이다. 박 병장 등 멤버 4명은 지리산 명상기행에 동참하려고 정기휴가를 같은 날로 맞추기까지 했다. 1일 휴가신고 후 부대를 나서자마자, ‘유아독존’ 멤버들은 불자가수 강혜윤(24)양과 함께 실상사 도착 때까지 노래연습을 했다.

박준규 병장은 “멤버가 모두 소속부대가 다른데다, 행군과 훈련이 잦아 최근 노래연습을 못했다”고 말했지만, 평소 ‘유아독존’의 음성공연에 대한 열정은 부대에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다.

실상사에 도착한 ‘유아독존’은 외국인 유학생 6명을 포함한 청년불자 100여명과 만났다. 팀원들은 실상사 템플스테이, 모의가족꾸미기, 지리산 숲길 명상도보 기행, 웰다잉, 래프팅 등 전 일정을 청년불자들과 함께했다. 2일 저녁 열린 축하공연에서는 강혜윤양과 함께 찬불가로 청년불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강혜윤양의 소속사인 연꽃의소리 박금표 대표는 “신심 돈독한 ‘유아독존’의 활동이 널리 알려져 각 군법당마다 부처님을 노래하는 장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교과부 지도에도 사찰 누락 ‘충격’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도 조계사 등 위치 표기 안해

국토해양부 ‘알고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지도(www.edugis.go.kr)에 사찰정보를 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는 조계사, 봉은사, 불국사 등 전국 사찰 정보가 누락된 반면 교회나 사우나 등은 표시되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교과부 행정정보화담관실은 8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찰정보 누락은 대부분 소규모 사찰 정보다”며 “학교관련 정보 서비스제공이 목적인 만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8월 7일 제공사에 지도 보완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계사(붉은 원)는 누락된 반면, 교회·모텔 등은 표기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조계사 등 주요사찰이 소규모 사찰인가. 한달 전부터 논란이 된 ‘알고가’ 사건 이후 수정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논란이 일자 수정지시 하는 정부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납품업체 데이터가 정부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부분 사용된 만큼 미리 수정하지 않은 지도제작업체 또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교과부 보도해명자료와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교과부장관의 공개사과와 대책 ▲담당공무원과 관련기관 징계 ▲공동조사단을 통한 진상조사 ▲한국공간정보통신 업체선정 및 운영 자료공개 ▲교육지리정보시스템의 모든 사찰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공식요청서를 교과부에 발송한 상태다.

한편 교과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를 납품한 한국공간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알고가’에 납품한 맵데이터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해 발생했다”며 “교육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통보받고 8일 오전 서비스 개시목표로 보완 수정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종단에서 IT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검수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정각회, 불교 규제법령 재·개정 추진

정각회원·보좌관 연찬회

국회 정각회(회장 최병국)는 7월 30일 서울 길상사에서 불교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8대 국회 정각회원 및 보좌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로부터 불교현황과 규제법령 등을 브리핑 받은 정각회원들은 국회 원 구성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을 분배해 불교관련 규제법령 제개정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각회원들은 각종 불교계 현안을 법령 제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와 사례별로 풀어야할 문제로 나눠 현안을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재무부장 장적,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장 향적 스님과 18대 정각회원인 안홍준, 이광재, 이은재, 이진복, 이한성, 정옥임, 정태근, 조문환, 박선숙 의원과 10여 명의 보좌관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제3회 ‘진언행자 선진’展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희(希)라 하고, 보려 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夷)라 한다.’ 자성의 소리를 듣는 의미를 담은 ‘희이반문(希夷返聞)’을 주제로 불교 진언을 조형언어로 부채에 표현해온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이 제3회 ‘진언행자 선진’展을 연다. 8월 7~15일 대구 불교회관 목연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진언을 부채로써 표현한 작품 32점을 선보인다. (053)767-0274

가연숙 기자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불자회에 지원금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8월 11일 파병되는 동명부대(3진)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8일 총무원 사회부장실에서 특별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홍국 중령(민사협조반장)과 임승근 원사(오른쪽) 등 불자장병 5명이 참석해 지원금과 군종특별교구에서 지원한 법요집 80권, 합장주 150개 등을 전달받았다.

레바논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펼치게 될 동명부대는 전체 인원 359명 중 불자가 약 8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근 원사는 “해외파병의 경우 대부분의 사병이 출국 한달 후 향수병에 걸리는데, 주둔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해외파병 특성상 종교활동이 유일한 치유방법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사불자련, 직무연수 수련회 성황

전국교사불자연합회에서 매년 여름방학 실시해온 신행 위주의 여름수련회가 진화했다. 8월 2일부터 2박3일간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200여 교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신행을 돈독히 하면서 교사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직무연수도 겸하게 됐다.

이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회장 어윤수)와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경남지부(회장 원정)가 올해초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승인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직무연수의 이수 과목으로는 불교 바로알기, 불교 전통문화체험, 신행 상담의 원리 등 불자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교양 위주로 구성됐다.

박지원 기자



인드라망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 창립 10주년 행사인 ‘지리산 야단법석’이 7월 31일~8월 3일, 지리산 실상사 작은학교에서 열렸다.

10년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활동한 활동가와 회원가족 100여명이 동참한 ‘지리산 야단법석’에는 도법 스님의 생명과 평화 이야기를 비롯해 별보기, 명상,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실상사 지역회원과의 만남, 영화보고 이야기 나누기, 수벽치기, 어울림 마당, 약이 되는 밥상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법 스님은 “앞으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 지역 젊은 불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총무원장 비리 조사 특별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촉구하는 성 명 서

태고종 보우승가회는 7월30일 한식당 다연에서 총무원 묵원(총무부장), 법타(재무부장) 스님을 도산(회장), 지홍(전회장), 대각(홍보부장)스님이 만나 우리 승가회가 제기한 총무원장의 비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로 발전 되는 것은 종단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앙종회의 발의로 구성하여 성역 없는 조사를 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사항을 총무원측의 묵원스님과 보우승가회측 대각스님이 각각 양측의 전권을 위임받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결과 8월 4일 오후3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양측의 특별 조사위원 후보 각각 4인이 예비 모임을 통하여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세부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총무원측 조사위원 4인(혜공, 원봉, 자월, 법현스님)중 법현스님을 제외한 3인이 참석하고 보우승가회측 4인(지홍, 대각, 금담, 복혜스님)이 참석하여 위원회 구성을 논의 하였던 바,

1. 자월스님과 법현스님은 태고원 이사 재직시 옥룡사 매각과 관련하여 조사특위의 **피 조사 대상자**로서 조사특위 위원으로 참가함이 불가하고,
2. 성역 없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피 조사법인(태고종 총무원,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 태고중앙 복지재단등)은 **법인 인감을 첨부한 대표의 위임장**을 조사특위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보우승가회 측 요구에,

운산스님측은

1. 피 조사 대상자로 지명된 자월,법현 스님은 태고원 조사 시에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으로 참가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2. 피 조사법인 대표의 위임장은 제출 할 수 있으나 인감증명은 첨부 할 수 없다,

는 이해 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사특위 구성이 무산 되었는 바, 이는 보우승가회의 종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애종심을 이용하여 **조사특위구성 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비리 행위를 덮고 넘어가 보려는 운산 총무원장의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운산 스님은 입만 열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도 밝혀낸 것이 없는 것 처럼 자신의 청렴함을 주장해 왔는데 무엇이 두려워 피 조사자인 자신의 최측근이며 상좌인 자월(전직부원장) 법현(운산스님상좌)스님의 조사특위 참여를 끝까지 주장 하는지 묻고 싶고 드러날 비리가 없다면서 조사 특위에 조사동의 위임장은 줄 수 있어도 위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은 줄 수 없다고 하는지 종도가 이해 할 수 있는 정당한 답변을 바란다.

종도 여러분!

보우승가회는 이번 총무원장 비리 사태로 인하여 태고종 종단이 감수 해야할 피해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년여 운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너무나도 많은 삼보 정재가 멸실되었음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은 오늘의 태고종이 있기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불사에만 전념하며 헌신하신 선배 종도들과 선 조사 스님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우승가회가 비리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히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함이며 그동안 교계신문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책자를 발간하여 종도들에게 발송 한 것은 운산스님이 보우승가회 집행부가 총무원을 방하여 의혹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면 조사를 받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문서로 질의하면 문서로 답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종단의 기관지인 한국불교 신문에 우리의 주장을 배재한 채 자신의 변명만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우승가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산스님을 사회법에 제소하고자 검찰에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로 운산스님의 죄상이 밝혀지면 태고종은 한국불교 최초의 총무원장 구속이라는 불명예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것 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우승가회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현재의 악습을 지금 끊어 버리지 못하면 한국불교 태고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종도여러분의 애종의 한목소리로 올바른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태고종단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비리를 척결 하여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2008년 8월 6일

보 우 승 가 회 회 원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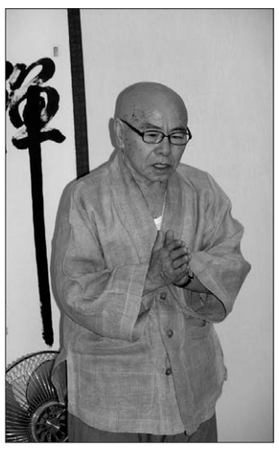
‘거짓 나’를 죽이고 ‘참 나’ 되살려

서울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동참기

서울 보림사(조실 묵산)는 7월 30일 오후 8시부터 8월 5일 오전 7시까지 보림선원 선방에서 제69회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개최했다. 3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법회는 거사선풍(居士禪風)을 일으킨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테이프 법문 듣기와 좌선을 병행하며 1주일간 자지 않고 참선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보림회의 철야정진은 백봉 거사가 1963년 ‘무자(無字)’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 한 후 재가 수행자를 개오(開悟)시키는 방편으로 주말 및 일주일~열흘씩의 철야정진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74년 여름 철야정진 때부터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백봉 거사는 85년 여름 23회까지 직접 제자들을 지도했으며, 입적한 이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던 것이다.

보림선원에서 철야용맹정진을 함께 하며 재가 수행자들의 발심과 고통의 극복, 새로운 발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했다.



보림선원 조실 묵산 스님(오른쪽 위)의 지도 아래 좌선 및 법문듣기(왼쪽 위), 운력(오른쪽 아래), 회향 소감발표(왼쪽 아래)등이 진행됐다.

#첫째날, 발심 혹은 두려움 안고 입재식=7월 30일, 광주, 당진, 춘천, 평택 등 전국 각지에서 21명의 재가 불자들이 7일용맹정진에 도전하기 위해 보림선원의 긴 계단을 올라온다. 휴가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고행의 문에 들어선 이유는 뭘까. 사실은 고행이 아니라 참으로 쉬기 위한 것이다. 세속의 욕망은 물론 온갖 분별 · 망상을 내려놓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에 대한 갈망마저 쉬기 위해 북한산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가슴속에는 해내고 말겠다는 발심과 함께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엄습한다.

저녁 8시, 예불을 겸한 입재식은 간소하다. 보림회 총무 청봉 전근홍(57) 거사가 철야정진의 유래와 대중청규(묵언, 장좌불와, 출입제한, 예불)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백봉 김기추 거사를 소개하는 불교방송 녹음테이프를 들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난다.

저녁 10시 15분, 30분간의 간단한 좌선이 끝나고 백봉 거사의 입재식 법문(83년 동계수련회) 테이프가 돌아간다. 자정,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이 끝나고 1시간의 차담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다. 첫날은 할만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든다.

#둘째날, 견딜만한 하룻밤을 지내고=새벽 1시, 첫 번째 정진은 백봉 거사의 ‘허공(텅빈 自性에 대한)’ 법문을 중심으로 한 <금강경> 법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2시 15분부터 4시까지 좌선과 포행이 진행되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예불 및 좌선, 오전 5시부터는 허공 법문이 1시간동안 이어진다. 법문 듣는 시간 역시 좌선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에 벌써 허리와 무릎이 아파온다. 철야정진을 해본 경험이 없는 몇몇 불자들은 수시로 다리를 바꾸고 허리를 움직여가며 고통을 참아본다. 역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운력과 아침공양 시간. 도량 곳곳을 청소하고 간단한 세면을 한 후 먹는 아침 죽 공양은 꿀맛이다. 좌선은 다시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좌선과 ‘화두드는 법’ 법문, 두 시간의 좌선이 이어진다. 점점 다리가 아파오고 점심공양은 입맛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몸이 부대낀다는 느낌이다. 오후 1시부터 설법과 좌선 시간이 반복된 후, 오후 5시 15분부터 공양을 하고 1시간 동안의 저녁예불과 포행시간을 갖는다.

자정의 차담시간은 역시 반갑다. 수박 파티로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잠시나마 달콤한 행복감에 젖어든다. 다가오는 두번째 새벽이 아직은 두렵다.

#셋째날, 수마와의 첫 번째 격전=일정은 어제와 다름 없지만, 몸에서 느끼는 반응은 다르다. 좌선 도중, 간혹 ‘쿵’하고 땅바닥에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수행자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전후좌우로 넘어지는 소리다. 철야정진시에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하는 날이 3일째다. 기자는 1년전 집에서 혼자 1주일 철야정진에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3일째 항복하고만 적이 있다. 수마(睡魔)와의 첫 번째 격전에 돌입한 기자는 자세를 수시로 가다듬으며 혓바닥을 입천정에 붙이고 호흡을 가늘고 길게 단전까지 내리며 ‘이뭣고?’ 화두를 챙긴다. 수마의 공격법을 미리 체험했기에 관문을 넘어선다.

#넷째날, 지친 몸 어디서 솟아나는 기운일까=새로운 화두를 뜻하는 ‘새말귀(우리 몸뚱어리 자체에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법신(法身)이 색신(色身)을 통해 삶을 굴린다는 사실을 알아서 곧바로 믿고 실천하는 화두법)’ 등의 법문과 좌선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셋째 날의 고비를 넘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온몸에 기(氣)가 넘친다. 지친 몸에서 솟아나는 알 수 없는 이 기운은 무엇일까. 본래부터 내면에 갖춰진 맑고 밝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정진할뿐.

#다섯째날, 걱정되는 관절부위, 그러나 커지는 자신감=연일 좌선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신체부위는 관절 쪽이다. 인대가 늘어나거나 관절염이 생기지는 않을까 조금씩 걱정이 들기도 한다. 1주일에 한번씩 하는 주말철야정진의 경우와 달리, 1주일 연속 정진은 허리와 무릎 등에 부담을 준다. 큰스님들이 “공부하다 죽는 놈 없다”는 경책이 새롭다. 생사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발심으로 용맹심을 내면서도 육신을 걱정하는 이 중생심은 또 뭔가. ‘부처님께서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中道) 수행으로 견성하신 길을 따른다’는 자기 합리화의 망상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해낼 것이란 자신감은 점점 높아진다. 아침공양 이후 가진 북한산 산행은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여섯째날, 졸음에 휘청이는 순간에도 깨어있다=여섯째날은 셋째날에 이은 두 번째 관문이다. 도저히 참지 못할듯한 졸음에 온몸이 요동치며 휘청인다. 머리가 숙여지거나 옆으로 기울다가도 어느 순간,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는다. 비몽사몽간이지만 꿈과 생시에 상관없이 깨어있음을 느낀다. 영원히 깨어있는 이 각성(覺性)은 잠이 들고 깨거나, 나고 죽음,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 공겁인(空劫人: 불생불멸하는 본래면목을 상징)이 아닌가.

#일곱째날, 해냈다는 환희심과 새로운 발원=오전 1시에 ‘여시아문’ 설법, 오전 2시15분부터 3시까지 마지막 좌선에 이어 3시15분부터 회향식과 정진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철야정진 기간 내내 잠을 거의 자지 않고 경책해 주신 보림선원 조실 묵산 스님이 회향식을 격려한다.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내가 허공성이다’하는 체험만 갖고는 인생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허공마저 부셔버려야 합니다. 허공을 부수려면 그릇이 커야 합니다. 자성자리는 출격장부(出格丈夫: 격식을 벗어난 대장부)가 종교를 초월한 자리이기에, 부처도, 조사도, 백봉도 따르지 말고 ‘뼈있는’ 공부를 하십시오.”

이어 보림회 총무 청봉 거사는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일주일용맹정진의 전통을 이어나감은 물론 주말철야정진을 금~일요일 정진으로 늘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고령 동참자인 정해숙(72, 문수행) 前 전교조위원장은 “용맹정진 도량에서 훌륭한 도반들과 함께 한 시간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1명의 도반들은 저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마침내 해냈다는 자신감을 안고 일터에서 또다시 색신(色身)을 굴리는 누리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리라. 김성우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5〉탄허 대종사❶



탄허 스님은 김제 만경출신이다. 여섯 살부터 16세까지 아버지 홍규씨와 할아버지 병일씨로부터 유학을 공부하고, 17세에 충남 보령 기호학파 이극종 선생으로부터 <예기>와 <춘추좌전>을 공부하였다.

20세가 되자 <도덕경>과 <남화 장자경>을 공부하다가, ‘도(道)’라는 말에 걸려 오대산 방한암 스님께 서신으로 문답, 30년 동안 20여 차례 서신을 주고받다가 22세에 출가, 3년 묵언 후 24세부터 중강을 시작해 금강 · 기신 · 범망경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27세가 되던 해부터 한암 스님의 증명하에 대교과

> “유·불·선 3교의 글을 물 흘러가듯 써 폭포수처럼 읽다가 장강수처럼 해설”

강주가 되어 <신화엄경합론> 47권과 사집 · 사교 · 사미 등 불교 내전 총 14종 70여 권을 현토 번역하였다.

필자는 1958년 스님의 세수 46세 되던 해 오대산 수도원에 행자로서 입원하였는데, 겨우 한 달도 못되어 상원사 선방으로 이전하였다. 57년 11월부터 대처 · 비구 분쟁으로 교육불사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탄허 스님은 조그마한 키에 둥글둥글한 모습은 마치 탱화 속의 아난 존자를 연상케 하였다. 강단에 서시면 큰 칠판에 유 · 불 · 선 3교의 글을 물 흘러가듯 써내려 가는데, 폭포수처럼 읽어가다가 장강수처럼 해설하셨다.

“천하에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태산보다 작은 것이 없다. 옛(古)이 옛이 아니고, 지금(今)이 지금이 아니다. 천지와 만물이 일체가 되면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그 시종(始終)을 말할 수 없고, 그 광협(廣狹)을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은 장자의 한 구절이지만 불교의 공적영지(空寂靈智)의 사상과 일치하므로, 스님께서는 항상 말과 글을 통해서 언어 이전, 생각 이전의 ‘도’를 연상할 수 있게 하였다.

1960년 해동불교역경원에서 <육조단경>을 간행하고, 1963년 <보조법어>를 내었을 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생들과 함께 동참하고 구하기 힘든 불서를 얻어 환희했던 생각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고 있다. 또 개운사, 청룡사에 가서 화엄신장에 대하여 물으니,

“자네가 19신장의 옹호를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8부신장의 보호를 받으면 전륜성왕이 될 수 있으며, 12천신들의 공경을 받을 수 있으면 3계의 도사가 될 수 있지.”

하셨다. 그 뒤에도 이러한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잘 잊혀 지지 않는 것은 1950년대 월정사에서 있었던 만두와 국수 공양이다.

원주에 살고 있던 한 거사가 매년 막내아들 생일불공을 드리느라 쌀 한가마니에 본인 월급 한 달 치를 쓰는 부인이 미워 욕을 하였는데, 마지막 불공을 드린 보살님께 도리어 스님께서 야단을 치셨다고 한다. 〈계속〉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3기생을 모집함

2. 불교학과

교과목 및 교수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상담론 · 불교사회복지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 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외 교계석학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현재 접수중 입학금 250,000원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통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3. 웰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찰음식문화학과(1년과정) 신입생 모집

웰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의식과 수행식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과 정	기 간	요 일	내 용	지도교수
사찰문화 음식학과 (30명)	기본과정 1년 (2학기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2시	· 전통음식과 대중화음식 조리법 교육 · 사찰음식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 · 사찰의 절기에 맞춘 실습 교육	정산스님 외 교계 전문스님과 교수진

•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후 2시

4. 9월 개강학과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 주역(2), 삼국유사(1,2),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2), 한자학원론, 설문해자	임채우(원광대교수),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최정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차수행법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점열교수, 적경스님, 오양가교수, 김진숙교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동산불교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미혜교수
요가삼밀학과(2년)	· 요가이론, 요가생리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삼밀수행법	안지용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5.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산3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3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 요가삼밀학과(정규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8월 1일 ~ 2008년 9월 9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요가삼밀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6. 개강일시 한문학과 : 9월 5일 (목), 다도학과 : 9월 9일 (화), 불교미술학과 : 9월 9일 (화)
불교장례문화학과 : 9월 9일 (화), 사찰음식문화학과 : 9월 3일 (수), 요가삼밀학과 : 9월 7일 (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음식 대신 수행으로 에너지 충전"

벽곡 50여일…서울 보리선원 수행현장

현장속으로

"아미타~, 아미타~, 아미타" 낮선 염불을 외는 수행자들의 손이 허공을 그리며 수인을 짓는다. 먹물 든 잿빛 법복 입은 수행자들은 30여명. 명상음악에 맞춰 마음을 안정시키는 청심인(淸心印)을 비롯해 염화감로인(拈花甘露印), 통천인(通天印), 진화인(眞火印), 원통인(圓通印) 등 다양한 수인을 그린다. 정중동과 동중정 차별조차 여읜 선무와 같은 수행자들의 손놀림이 이어지자 얼굴은 어느새 부처를 닮아 있다.

법당 밖은 섭씨 30도 넘는 폭염이 기승 부리는 화탕지옥이지만, 30평 남짓한 법당만은 수행시간 내내 선풍기 하나 없이 꽉 닫혔어도 수행자들의 신심과 법열 가득한 극락세계다.

서울 방배동 보리선원(선원장 각성) 법당은 여느 사찰과 달랐다. 티베트불교를 홍법하는 국제보리법문 한국선원으로 탕카(Thangka, 티베트 밀교 회화)를 건 불단도 이국적인 모습이지만, 선관선(禪觀禪) 수행법으로 대표되는 보리법문을 수행하는 모습도 색달랐다.

정작 유별난 것은 점심공양 시간이 되자 알 수 있었다. 30여명 수행자 모두 공양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쉬는 시간 맞은 학생처럼 삼삼오오 둘러앉아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연화장 보살님 오늘이 몇일째지요?" "벽곡한지는 41일째고, 물만 먹은 것은 28일째잖아." "몸이 가볍고 물위를 걷는 것 같다"는 말도 들렸다.

벽곡(辟穀)은 밥 등 곡식 대신 물이나 과일, 야채 등을 섭취하는 수행법이다. 성철, 숭산 스님 등 선지식들이 했던 벽곡 수행을 보리선원 신도들이 하는 중이다.

벽곡 115일째를 맞은 법연 스님을 비롯해 65일째인 보리선원 신도회장 진희 보살(57·방배동)은 법당에 모인 30여명 신도 대부분이 곡기를 끊은 지 50여일이 지났다.

벽곡으로 위장 질환이 있었다는 신도는 속을 다스렸고, 고혈압과 당뇨를 완치했다는 신도도 한 둘이 아니었다. 신도들은 "벽곡으로 편안한 심리상태가 유지돼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리선원 신도들은 어떤 인연으로 벽곡수행을 하게 됐을까? 일반인들은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단식, 절식을 하지만 보리선원 신도들은 달랐다. 30여명 모두 이구동성으로 "아무 계기가 없었다. 수행하다 보니 저절로 음식을 멀리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인들은 밥에서 에너지를 섭취하지만, 보리선원 신도들은 수행으로 에너지를 얻어 음식이 필요없지요. 벽곡을 시작하면 음식이 그림 같아 보여요"





진희 보살은 "일반인들은 밥에서 에너지를 섭취하지만, 보리선원 신도들은 수행으로 에너지를 얻어 음식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보살은 "벽곡을 시작하면 음식이 그림 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원심행 보살은 "부처님 가피와 각성 스님의 지도로 수행과 벽곡을 이어 간다"며, "수행법과 스승, 자신에 대한 감사함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보살은 "벽곡은 처음 3일과 7~10일, 마지막 30일이 고비"라며, "단식 등과 다르게 보식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먹고 싶을 때 먹어도 아무 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혜통 보살은 하루 평균 7시간, 최장 11시간을 수행한다. 보살은 "수행으로 생체에너지가 회복돼 건강이 좋아졌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는 보너스"라고 말했다.

진희 보살 등 대부분 신도들은 독경, 절 수행 등 한국불교 수행법을 두루 섭렵한 고수(?)들이다. 10년 이상 다른 사찰에서 수행하던 신도들을 보리선원에 모은 힘은 수행에 목마르던 이에게 전해진 감로수 같은 법열이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INTERVIEW
보리선원 주지 각성 스님



"진정한 수행자 양성 도량으로"

"보리선원은 진정한 수행자를 키우는 도량입니다."

선원장 각성 스님은 "자비는 에너지다. 수행을 통해 에너지를 느끼고 받는 것이 실증실수(實證實修)"라며, "벽곡은 수행과정이며, 표현방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각성 스님이 보리선원에서 지도하는 수행법은 티베트 밀교 수행자인 금보리 스님이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수행법으로 제시한 대광명수지법, 보리청정관상법과 오체투지 등이다. 스님은 "보리법문의 핵심은 업을 짓는 신·구·의 삼밀(三密) 각각을 수인과 진언과 관상 수행으로 선정에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성 스님은 "불법에는 종파와 국가, 민족 등 경계가 없다"며, "보리법문은 법희와 선락을 얻기 쉬운 수행법"이라 소개했다. 매년 티베트 명상음악회 등을 개최해 한국에 티베트불교를 알려온 스님은 9월쯤 티베트 수행지침서인 <가사>를 출간할 예정이다.

각성 스님은 "보리선원은 항상 열려있다"며, 보다 많은 수행자들이 보리선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보리선원은

티베트불교 수행도량으로 7호선 내방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다. 수행 중심의 가족단위 신행활동이 특징이며, 법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정기법회와 학생 및 거사를 위한 특별법회 등이 수시로 열린다. (02)586-6185, www.putifa.co.kr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특별보시금 60만원 ▷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교육시간(매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오후 6시30분 – 8시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 · 명상 · 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왜 붓다는 뼈가 앙상하거나 뚱뚱할까?

해외불교칼럼

동양의 전통적인 불교국가에선 일반상식이 전법이 뒤늦은 서구사회에선 얘기꺼리가 되기도 한다. 다음은 미국의 한 어린 불자가 불교공부방사이트에 올린 질문인데, 초롱초롱 호기심어린 눈망울의 우리 어린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들은 붓다라 하면 명상하고 가르침을 베푸시는 큰스승 붓다의 모습을 얼른 떠올리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는 배가 툭 튀어나오고 껄껄대는 모습이 떠오른대요. 고행하시느라 온몸의 뼈가 앙상한 붓다가 맞나요? 아니면 뚱뚱하고 웃으시는 붓다가 맞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에 대한 사이버 지도법사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웃는 붓다' 또는 소불(笑佛)은 샤키아무니 붓다가 아니라 10세기 경 중국에 살았던 선승 정응 대사(定應大師)의 별칭이다. 치에치(契此)란 이름과 몇몇 호칭을 가진 그는 지금의 절강성 영파 출생이다. 육중한 체구에 호방한 웃음의 복덕원만(福德圓滿)의 상을 지닌 그는 늘 커다란 헝겊자루를 메고 다녀서 보따리 스님, 곧 부다이(布袋)화상이라 불렸다. 그 보따리에는 애들한테 줄 사탕 등 먹을거리들도 늘 담겨있었다. 지금도 그는 대개 애들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지팡이를 벗 삼아 여기저기 떠돌던 그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길흉과 날씨 등을 짚어


보따리 가득 먹을거리를 담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부다이 화상.

내곤 했다. 마침내 그는 행복, 자비, 부의 상징이 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어린 중생을 돌봐주는 수호불로 자리매김을 한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사찰은 물론 대형호텔과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더러 그의 조상(彫像)을 볼 수 있다. 그 불룩한 배를 손으로 문지르면 큰 행운과 재복이 찾아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의 가르침보다는 민간설화에서 유래한다.

또 그를 선불교의 심우도(尋牛圖) 중 끝장면과 연관을 짓기도 한다. 대각에 이른 선사가 저자거리로 들어와 선남선녀들에게 깨우친 바를 펼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도교에선 풍요의 상징, 그리고 일본의 신도에선 칠복신(七福神) 중 하나인 호데이로 받들어진다. 그는 죽기에 앞서 자신이 미륵보살의 현신이라 말했다. '미륵참 미륵이여, 천백 억의 몸으로 나뉘어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함이라.' 그는 이 게송을 남기고 반석 위에 정좌하여 입적했다. 그런데 보따리 화상의 또 다른 버전도 있다. 세존 당시 열여덟 아르핫 중 앙기다의 얘기다. 그는 인도 사람들을 살상하던 독사들을 잡아 독아(毒牙)를 빼고 놓아주어 자비와 불살생의 공덕으로 보디에 이르렀다. 그 역시 육중한 몸집에 독사를 주워 담는 보따리를 들러 매고 껄껄대며 떠돌았다.

태국엔 또 다른 버전이 있다. 세존 당시 아르핫 중 프라상가차이는 불법을 누구나 쉽게 알아듣도록 펼쳐 세존의 찬사를 받았다. 그런 그에게 희한한 고민이 있었다. 요즘 우스개로 치면, '너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란 웃지 못 할 사연이었다. 숱한 여인들이 그의 주변을 줄곧 살랑대고 심지어 같은 남자들마저 집적댈 정도였다. 출중한 외모가 수행생활에 큰 방해가 되자 그는 자신의 외관을 바꾸기로 작심했다.

그래서 삼겹살다이어트를 한 건지 둔갑술을 쓴 건진 모르되, 그는 이내 배와 턱이 축처진 흉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부다이는 삭발이고 태국의 프라상가차이는 곱슬머리란 점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소불(the Laughing Buddha)의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소불을 영역표기로 'the Smiling Buddha'라 하면 얘기가 퍽 달라진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국가 이외에 최초로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했던 1974년, 인도의 최고위층은 기존핵보유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이를 극비암호명으로 사용했다.

왜 하필 붓다의 미소를 암호명으로 쓴 걸까? 핵보유국 너희들 모두 까불어 봐야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까? 그나저나 인도인들의 유머감각도 그들의 과학기술만치 국제수준급이다.

출처: O' brien CLM, The Laughing Buddha
번안 :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That is not a sin. It's only a mistake."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저 착각일 뿐이니까요."

A young lady prostrated herself down at the golden Buddha in the grand Dharma Hall and pleaded, "Please help me, Lord Buddha, for I have sinned." The master came to ask her, "What is it, Bosal-nym?" "Venerable, sir, I have committed the sin of vanity. I always gaze at myself in the mirror and tell myself how beautiful I am." He just went away but later sent her text messages by cell-phone, "Bosal-nym, no worry! That



is not a sin. It's only a mistake."

한 아가씨가 대웅전 금동 불전에 엎드려 간절히 빌었다. "부처님, 저를 굽어 살펴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녀를 본 스님이 물었다. "보살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요?" "스님, 제가 그만 허영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저는 만날 거울속의 저를 들여다보면서 어머, 난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스님은 그냥 지나가더니 나중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보살님, 염려마세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저 착각이니까요."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가짜 승려행사 일당 검거
미화 2만 달러 사취 들통

중국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해 승려행세를 하며 금품을 사취하던 일당 12명이 7월 27일 타이완당국에 검거됐다. 삭발에 황색승복과 바랑을 착용한 이들은 타오웬국제공항(桃園國際機場)에서 출국직전에 체포되어 29일 언론에 공개됐다.

타이완 국가이민국은 중국남방의 선천(深圳)에서 가구전시회 참가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이 도착 즉시 승려로 위장, 사찰의 건설현장 등 사진을 보여주며 미화 약 2만 달러를 사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조직적 국제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일당은 타이완법정에 회부된 후 중국으로 추방되며 재입국이 영구금지된다.

출처: BNT

"모든 중생은 존재이유가 있다"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 앨리스 워커 ❹

그 후 1966년 그녀는 뉴욕시 복지부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듬해엔 온갖 시비와 압력을 재끼고 유태계 백인 민권변호사인 멜빈 루벤탈과 결혼한다. 이는 그들의 주거지인 미시시피 주에서 당시 유일한 흑백혼인 사례다.

이어 그녀는 시와 단편소설 등의 장르로 본격적 창작활동에 들어선다. 그 대부분 미국의 당면 사회문제인 폭력, 강간, 인종차별 등을 다룬 현실고발성 작품들이다. 결혼 후 얼마간 심적 안정을 찾은 그녀는 아이가 사산되자 또다시 휘청한다.

하지만 그 못잖은 일대충격이 그녀를 기다린다. 이태 전 맬컴 엑스의 암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해당한 것이다. 맬컴 엑스의 과격분리노선보다 킹 목사의 참여적 저항노선에 기울었던 그녀로선 분노와 공허감이 극심 했 다 .

미시시피 주 최초 흑백혼인 사례 기록
'혁명하는 페튜니아'로 전미 도서대상

킹 목사는 신학교에서 불교철학과 간디의 비폭력사상에 심취하며 보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다.

그 후 흑인투표권 요구 등으로 수차례 법정에 선다. 1964년 35세로 역대 최연소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는 틱낫한 선사를 차기수상후보로 추천할 만치 불교철학에 공감대를 지닌다. 그의 민권운동은 흑인은 물론 소수민족, 노동자 및 백인 빈곤층까지 확산되고 베트남 반전운동으로 이어진다.

그가 1968년 총격으로 사망하자 미국의 63개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그의 장례식에는 15만 명이 운집한다. 그를 죽인 제임스 얼 레이는 몇 년 뒤 미국 중앙정보부가 자신에게 암살을 교사했다고 실토한다. 맬컴 엑스와 마틴 루터 킹, 그 두 흑인 지도자는 1920년대 출생으로 사십대가 되기 전에 피살된다. 무슬림인 맬컴 엑스는 연설 도중, 침례교인 킹 목사는 연설 다음날 피격된다.

맬컴 엑스는 뉴욕 할렘가의 밑바닥 생활을 겪고 킹 목사는 안정적 교육환경을 거친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실천운동가인 두 사람이 지닌 공통점은 인간애와 자기 확신이었다.

그들이 지핀 민권운동의 불꽃은 '블랙 파워', 흑표당(Black Panthers Party) 등 간혹 과격양상을 띤다. 그러나 다른 한편, 흑인들의 조용한 내부적 관조와 자아성찰로 이어진다.

그리고 40여년 뒤인 지금 바락 오바마는 첫 흑인 대통령을 꿈꾼다. 이는 인류사상 가장 고요하고 무서운 혁명의 전야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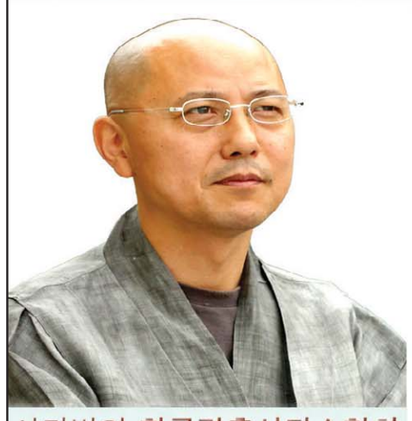
남아프리카의 잔혹한 흑백분리정책에도 마침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듯,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어차피 새벽은 오는 것이다. 아무튼 미국의 민권운동 격동기는 준내란적인 폭력의 계절이었다. 그 와중에 앨리스 워커는 줄곧 집필에 몰두한다. 만일 그녀가 은사들의 충고를 외면하고 정치사회운동에 머물렀다면 그녀의 문학적 재능은 빛을 못 보고 스러졌을지 모른다. 그녀는 첫 시집 <언제가>에 이어 삼대 가정폭력을 그린 소설 <그 랜 지고프랜드의 제3의 삶>을 출간할 즈음 딸을 낳는다. 마침내 문학적 소양을 인정받은 그녀는 상근작가로 자리를 잡고 웰리스리대학에 교직을 얻어 미국 최초의 성별연구(gender studies) 클래스를 시작한다. 혁신적 사회운동가로서 그녀의 문학 활동은 1973년 <사랑과 괴로움 안에서>로 이어지며 그녀의 두 번째 시집도 출간된다.

그 후 잠시 여성운동전문지인 '미즈'의 편집장도 역임한 그녀는 첫 남편과 헤어지고 동료 겸 친구인 로버트 앨런과 새 사랑을 키워간다. 그녀는 다섯 권의 시집 가운데 <혁명하는 페튜니아>로 1973년 전미 도서대상을 수상하고, <컬러 퍼플> <메디리언> <여인들의 신전> 등 다섯 권의 소설을 내놓는다.

그 중 <컬러 퍼플>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갈 즈음 앨리스 워커 보살님이 남긴 삼라만상의 존재이유에 관한 법문이다. '모든 중생은 나름대로 생겨난 까닭이 있으니, 동물이 사람을 위해 생겨나지 않았듯, 흑인도 백인을 위해 생겨나지 않았고, 여자 또한 남자를 위해 생겨나지 않았다.'

성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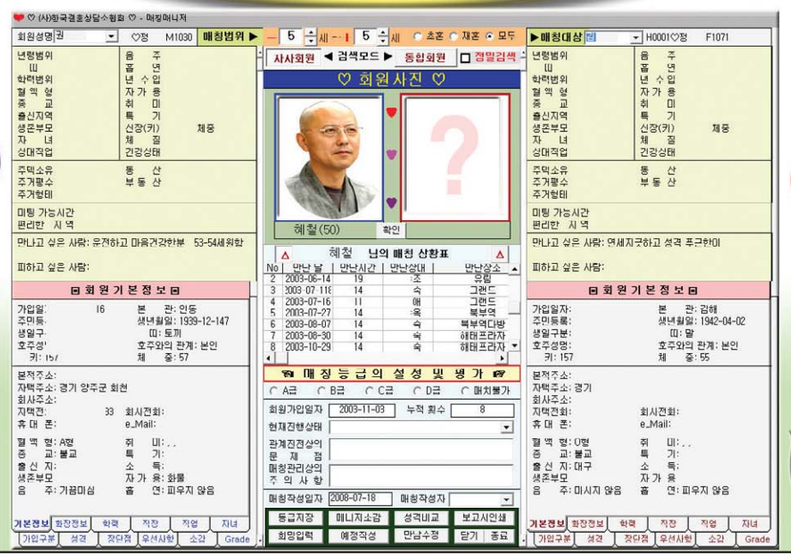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혜철 대성사 주지스님

스님출연 ◆ TV프로그램
KBS 아침마당 / VJ특공대 / 무한지대Q
MBC 화제집중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 6mm 세상탐험 / 손석희의 시선집중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생방송 투데이
YTN 전국 네트워크
불교TV 아름다운 사람들
불교방송 BBS 초대석
충북방송 충북, 충청인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프로그램의 기능
계약관리
회원관리
희망정보관리
회원매칭관리
성혼자관리
불량회원관리
주소록관리
매니저관리
홈페이지정보관리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

News !!!
매일 100개 이상의 공유 프로필이 전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개만 입력해두셔도 맞선 요청 전화가 걸려 옵니다!!!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

“모든 해법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어”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 천배 수행
무료 점심공양 등 지역사회 위한 불사도
“어려운 일도 인연으로 여기고 풀어나가야”



성웅 스님 (직지사 주지)

콸콸콸~~~ 힘차게 흘러내리는 계곡 물소리가 하도 듣기 좋아 땀도 식힐 겸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계곡 물소리에 발을 담그고 초록빛으로 눈을 단장하고 나무 그늘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마음은 계곡물을 따라 떠돌다가 허둥지둥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직지사(直指寺)에 들어와 있으니 무슨 걱정 있으랴 싶었다. 직지라는 사명(寺名)은 선종의 가르침인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이곳에 들어오는 이는 누구나 본마음을 볼 것 같다.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는다면 말이다.

성웅 스님은 수십 년 동안 날마다 일천 배를 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고 있다. 어떤 이는 성웅 스님을 가리켜 ‘지계제일’이라 칭하기도 한다. 성웅 스님은 출가하기 전까지 희방사에서 2년 정도 고시공부를 하였고, 청량사와 강천사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다.

“속가에서도 결코 절도(節度)없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고(苦)가 많고 장애가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사회에서의 성공이 그 고통을 해결해줄 수 없음을 깨달았지요. 그때 절에 머물면서 새벽 도량석 소리에 크게 발심했습니다.”

발심한 그 마음을 살려 동양방송에 ‘나는 출가를 하고 싶다. 훌륭한 스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글을 띄웠다. 방송을 듣고 의룡(義龍) 스님이 연락을 해 왔다. 의룡 스님(직지사에서 7년 동안 강주로 지냈다)을 따라 출가를 하였지만, 의룡 스님과의 인연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해인사에서 4·5·6대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을 은사로 하여 출가하였다.

성웅 스님은 군 제대 후 출가를 하였으니 늦깎이 출가인 셈이다. 늦은 만큼 더 발심해야 하고 분심을 일으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해인사에서 3년 동안 행자생활을 하였는데, 울력을 할 때면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일하고 울력이 끝나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자진해서 하였다. 날마다 세제를 풀어서 닦고 뜨거운 물 부어서 소독했다고 하니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화장실 청소에도 이만큼 공력을 들이는데 다른 일은 말해 무엇하랴 싶었다.

성웅 스님의 일천 배 수행은 해인사 행자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새벽 도량석이 울릴 때까지 천일동안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도량석 하고, 종성하고 대종치고 나서도 공양시간 직전까지 법당에 머물면서 절 수행을 하는가 하면, 저녁 예불시간에도 어김없이 법당에 들어가신다. 백중기도나 특별 기도가 있을 때면 대중들과 같이 사시예불과 더불어 정진을 하는 것이다. 올해로 세수 칠십인 노스님으로서는 무리한 수행이 아닌가 싶어 걱정을 하였더니 “내가 절 수행을 그만 두는 날이 바로 내가 몸 바꾸는 날이지요”라고 답하신다. 열반에 들 때까지 정진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읽을 수 있었다.

“<화엄경> 약찬게를 보면 108번째 ‘초발심시 변정각(初發心時 便正覺)’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머지않아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할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성웅 스님은 우리의 본성인 불성을 의심해 본 일이 없기에 수행에 수행을 거듭하다 보면 가까운 시일에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동안거 하안거 때는 백일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데 바깥 출입할 일이 없지는 않을 터인데도, 미리 방을 놓아서 오롯이 수행에만 맘을 쏟는 것이다. 산철에도 바깥 출입을 할 때면 꼭 어른 스님께 허락받고 종무소에 보고를 하고 간단다. 출가하신지가 몇 십 년이나 되는데 좀 느슨하게 지내도 되지 않느냐고 말을 거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미계, 비구계 받을 때 계율을 지키겠다고 부처님 앞에 굳게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날마다 일천 배를 올리는 것은 나 스스로가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일이라고 원칙을 정했기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같이 더운 날에는 기도를 하다보면 하루에 두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세탁을 함에 있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노구의 몸을 이끌고 대중들과 함께 탁발 나가신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도 아니란다.

성웅 스님은 지장보살의 원력을 좋아해서 주로 지장기도를 하는데, 기도 때마다 ‘지장보살 예찬문’을 독송한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뒤라야 보리를 증득할 것이며, 지옥을 다 없애기 전에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衆生渡盡 方證菩提 地獄未除 誓不成佛)’라는 지장보살의 원력이 바로 대승불교의 목적이며, 대표적인 보살행의 이상이라 하였다. 스님은 지장보살 예찬문을 ‘대승보살 실천 열 가지 청규’라고 이름 붙여 초하루 법회 때 대중과 함께 독송한다. “첫 번째, 나는 살생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발원합니다.” 대승보살의 열 가지 청규 중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아도 자신의 수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웅 스님 또한 자신의 수행이 대중과 사회로 회향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직지사 주지 소임을 몇 달 남겨 놓고 있는 스님에게 직지사에서 이룬 불사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였더니 “어른 스님께서 오랜 세월동안 큰 원력을 세워 해 오신 일이고 저는 그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손을 내젓는다. 이십년 넘게 상주 남장사에 머물렀던 성웅 스님은 그곳에서 많은 불사를 이루어 놓았다. 청소년 포교에 원력을 세워 지방 조직으로는 최초로 파라미타 상주지회를 발족시켰으며, 상주포교당 병설 유치원과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다. 무료 점심공양, 무료 진료서비스, 생일잔치, 명사초청특강, 효도관광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해마다 치루는 행사이긴 하지만, 올 어버이날에도 상주 실내체육관을 빌려 ‘어르신을 위한 장수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천오백여명이 참석하여 실내체육관을 꽉 채웠다고 한다. 팔십오 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간의 용돈도 드렸단다. 지금도 상주 복지관과 자활센터의 관장을 맡고 있다고 하니 상주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게 되면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과법을 풀어나간다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회에서도 성웅 스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해법을 찾는다면 쉬이 해결될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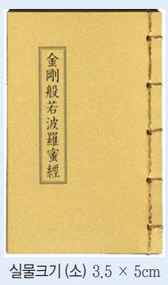
다실을 나서니 매미소리 요란하다. 매미소리에 묻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매미는 또 다른 정적(靜寂)을 만들어내고 있음에 틀림없다. **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선지식을 찾아서

성웅 스님은

1940년 전남보성 출생. 1970년 해인사에서 고암 대종사를 은사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1년 해인사에서 고암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3년 해인사 강원 수료. 해인사 선원을 비롯하여 전국 선원을 돌면서 수선안거. 1993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선학과 수료. 2004년 경북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초심 호계위원 역임. 상주 남장사 주지 역임. 1997년 남장사가 조계종 전법 시범도량으로 지정. 2000년 교정대상 본상 자비상 수상. 지금은 직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성웅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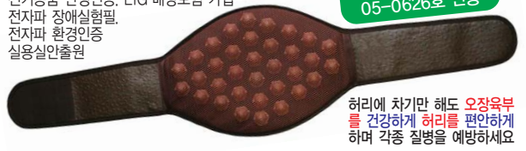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0 우뭇가사리 요리<3>-가지우무

추워 보이는 음식이라는 뜻을 지닌 한천(寒天)은 우뭇가사리가 원재료다. 삶은 우뭇가사리를 굳힌 것을 우무라 하고 옥외에 1~2주 동안 건조시키면 한천이 된다. 한천은 다른 식이섬유와는 달리 칼로리가 전혀 없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신의 저주라 불리는 비만 · 고혈압 · 고지혈증 · 고혈당 4가지가 합해지면 동맥경화가 40배로 증가하게 된다.

한천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효과
공복감 해소 위한 식재료 활용도

한천은 고혈압 · 고혈당 ·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효능이 있다. 식사를 제한하는 당뇨병 환자의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고안한 것 중 하나가 한천을 활용한 신개념 식재료다.

식사제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당뇨병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한천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한천을 먹은 그룹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 혈당치와 체지방도 감소시켜 한천을 먹은 쪽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천과 다른 식이섬유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톳이나 양배추와 같은 일반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는 소화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됐다. 반면 한천은 놀랄만한 보수력(수분을 붙들고 있는 힘)으로 부피가 팽창돼 장으로 향한다. 장에서 혈관 벽을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다. 결과적으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부피가 커진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함께 배출시키는 것이다.

한천을 굳이 굳히지 않고 그냥 한천을 녹인 액체를 먹어도 위에서 저절로 단단하게 굳어진다. 액체가 고체화 되면 블록효과를 발휘해 당과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산촌 (02)735-0312



가지우무 만들기

가지, 우무, 간장, 깨소금, 고수, 참기름.

만드는 법

① 갓 끓인 뜨거운 우무물을 얕은 사각 용기에 부어 응고되기 전 단계까지 식힌다.
② 찐 가지를 한 김 나간 후 젓가락 길이로 갈라 간장 • 깨소금을 넣고 무친다.
③ 우무물 위에 얹어 골고루 섞고, 8시간 정도 차갑게 굳힌다.
④ 고수는 잘 씻어서 펄펄 삶아 간장 • 깨소금 • 참기름을 넣어 무친다.
⑤ 굳힌 우무를 보기 좋게 썰어 그릇에 담고 고수무침을 옆에 곁들인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❹

"농사도 생활도 모든 것이 공부"

선방을 다니며 공부하며 뽕잎차를 만들다가 참선에 대해 생각했다. 참선하며 일상생활 모든 것이 선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농사도, 생활도 무엇 하나 공부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잠산 아래 좋은 터에 스님들이 정진할 선원을 만들고자 원을 세우고 3년을 꼬박 수행하며 도량 불사를 위해 수행 정진했다.

2006년 12월, 합천 이씨 문중터로 절터 확보가 어렵던 땅을 건물을 포함해 어렵게 확보했다. 조계종 종단 등록을 마치고 제15교구 통도사 말사로 등록했다. 하지만 터도 좁았고, 건물은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3년 동안 신도들과 함께 법당을 손보며, 잠실로 사용됐던 3개 건물 중 한 동을 황토방으로 만들었다. 건물 두 동은 템플스테이와 휴양·공부할 수 있는 요사채로 만들었다. 주변에 토질 좋은 황토를 가져오고 대나무도 직접 구해다 천정에 얹고 황토도 직접 발랐다. 무엇하나 손이 안가는 곳이 없다. 그때부터 신도들에게 "스님 목수 하셔도 되겠소"라는 우스갯소리를 듣게 됐다.

3년이 지나니 집 짓는 것도 혼자 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작은 도량이지만 오는 분들이 좀 더 편히 쉬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황토방을 만들었다. 신도들도 황토가 몸에 좋다며 자주 와 쉬어가느라 작은 도량이 북적였다.

신도들이 늘 머문 것이 아니라 비어 있을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네이버의 금강선원 카페에 황토방 사진을 자주 올리면서 휴양과 공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찾는 이들이 늘었다. 주변 경관이나 황토방이라는 점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연락이 늘기 시작하더니 휴양을 원하는 이들도 찾았다. 그러다 보니 방도 늘고 스님 일도 늘고.



"스님은 일할 사람같이 안 생겼는데 일하는 것 보면 신기하네요." 반 목수가 된 모습에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처음부터 일할 사람이 따로 정해졌습니까?"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자리를 챙기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경계와 하나 된 마음으로 일하다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충실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 다가온 인연과 경계의 자리에서 마음자리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일에 치중하다 보니 신도들에 의지해 유지되는 여느 사찰과는 다르게 금강선원은 전통 선가처럼 자급자족의 형태가 됐다. 풀 베고 고구마 수확하는 일 하는 스님이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055)931-9590 <계속>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8 시린 이 치료

찬물 마실 때마다 괴롭다면 원인 진단부터

요즘처럼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는 외출 후 돌아오면 냉장고 문부터 열게 된다. 시원하게 쭉 들이키는 찬물 한 컵! 이 순간의 시원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분을 못 느끼고 산 지 오래됐다는 50대 초반의 K모씨. 그는 정수기의 찬물도 오른쪽 어금니를 피해가며 마시고 양치할 때도 오른쪽 어금니는 제일 나중에 헹군다고 한다. 일상생활에는 별 불편이 없어 치과 찾는 것을 미루다 올 여름 폭염에도 찬물 한번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것이 괴롭다며 치과를 방문했다. 방사선 사진을 찍고 검사한 결과 진단명은 의외로 치주질환, 흔히 알고 있는 풍치였다.

치아도 신체 여러 장기들처럼 전신 상태나 스트레스 등의 상황에 따라 같은 자극에도 반응 정도가 다르다. 몸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갑자기 차가운 음식에 시리거나 잇몸이 욱신거리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치과에서 간단히 잇몸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 외에 만성적으로 이가 시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잇몸질환, 충치, 치아마모증, 치아파절(치아균열) 등이다.

잇몸질환이 경미한 경우는 치석 및 치태(플라그)를 제거하는 스켈링과 적당한 칫솔질 방법만 배워도 시린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잇몸질환이 심해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는 스켈링으로 끝나지 않고 치과 국소마취 후 시행하는 잇몸치료를 받아야 한다. 염증이 있는 잇몸을 가라앉히면 잇몸이 단단해져 시린 증상이 줄어들게 된다.

잇몸질환이 심한 경우는 시린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 잇몸뼈와 함께 잇몸살이 내려앉아 노출돼서는 안 되는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치과 레이저를 이용해 민감한 뿌리 부분을 시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치료를 한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시린 이용 치약을 함께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잇몸 뼈가 내려가지 않게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잇몸치료를 받고 정확한 칫솔질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충치에 의해서도 이가 시리다. 충치는 만성질환이므로 치아안 신경까지 충치가 진행돼도 시리거나 아프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돼 치아 신경에 가까운 층에 영향을 주면 처음에는 차가운 음식에 시리게 되고, 다음에는 더운 음식 그리고 단 음식에까지 시리게 된다. 충치는 집에서 거울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 인접면에서 진행되는 충치는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진행이 매우 빠르므로 갑자기 음식물이 이 사이에 끼거나 시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치과를 찾는 것이 좋다.

치아와 잇몸 경계부 치아가 쐐기 모양으로 패여 시린 경우도 매우 흔하다. 치아 옆 부분이 파이는 원인은 옛날에는 치아 옆면의 양치질을 옆으로 힘줘서 파이는 경우가 많았다. 요즈음은 그런 경우는 매우 적다. 최근에는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등 치아가 뒤틀리는 힘을 받아 치아 옆면의 치질이 떨어져 나가서 치아가 파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잇몸 하방까지 치아가 패인 경우도 있다.

치아가 패여서 치아 내부 민감한 부분이 노출돼 시린 경우는 치아와 같은 색을 띠는 레진이라는 수복재료로 패인 부분을 메꿔주면 시린 증상이 사라진다. 이 때 치아가 패인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를 함께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아가 파절되거나 치아에 금이 가도 시리다. 치아가 깨진 경우는 혀로 만지면 거칠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지만, 치아에 균열이 간 경우는 본인이 알기 어렵다. 치아에 균열이 간 경우는 씹을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고 시린 증상이 있다. 이 경우는 빨리 치과에 가서 검사 받아야 한다. 치과 검진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자. (02)776-2882

[법보시 PR]

대중법문

어느 누구도 구제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열반경)
보리의 싹이 없다고 멀리 제쳐 놓은 일천제(一闡提)라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체중생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열반경 보살품의 일절을 들어보면, 일천제는 일체의 선근(善根)을 단멸(斷滅)하여 불에 볶은 종자와 같은 것으로 백천만겁을 지나도 결코 보리의 싹이 생기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열반경 범행품(梵行品)에서는 보살은 일천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같이 지옥에 태어나겠다고 하였다.

'일천제가 지옥의 괴로움 속에서 만일 조금이라도 개회(改悔)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명해서 일념의 선근을 생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일천제의 성불(成佛)의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아사세왕의 귀의와 같이 부처님이 일천제를 위해서까지 법을 설하고 있다는 일절은 일천제에게는 현세에서 선근을 얻은 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각각의 법을 설하더라도 모든 중생이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방편으로 구제해서 나가고 여의는 것을 얻는 경문을 볼 수 있다.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따라서 앞에 실은 예문은 열반경 광명변조 고귀 덕왕보살품의 일절로서 "일천제를 소멸하고 그런 뒤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일천제의 성불을 말씀하고 있다. 열반경의 취지의 하나가 일체 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음을 밝히는데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살품 중에서 가섭보살(迦葉菩薩)이 "부처님이 설법하고 대열반(大涅槃)의 빛이 일체 중생의 모공에 들어가 중생에게 보리심이 없어도 보리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뜻이 옳지 않다. 만일 사중금(四重禁). 오역(五逆). 일천제의 사람에게도 광명이 몸에 들어가서 보살의 인(因)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참으로 정계(淨戒)를 닦고 있는 사람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하고 의문하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곧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는 진리의 세계와 현실 차별의 세계와의 갭(gap)을 말하는 것이다. 이치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수도(修道)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차별이 있음은 말 할것도 없는 것이다. 이 두 세계는 말하자면 사(事)와 이(理)의 세계의 관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열반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체도 방편설(方便設)로서 이(理)는 실유불성(悉有佛性)이지만, 처음은 수도론상(修道論上)의 입장을 바탕으로 '다만 한 사람을 제외한다' 고 하여 일천제는 보리의 싹이 없다고 멀리 제쳐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논(論)에 이어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설하고 극애일자지(極愛一子地)를 설명, 진행시킨 뒤 여기에서 일천제도 성불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게끔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발전되어 대비천제(大悲闡提)사상이 생겨난 것이다. 곧 입능가경(入稜伽經) 제 2권 끝에 집일체불법품(集一切佛法品) 3의1에는 천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여 방법천제(謗法闡提)와 대비천제(大悲闡提)를 설명하고 있다.

방법천제란 소위 천제를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 대비천제란 보살을 말한 것이다. 보살이 방편(方便)으로 '만일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들지 않으면 나도 역시 열반에 들지 않겠다.' 라든가, 앞의 범행품(梵行品)에서 보았듯이 일천제가 지옥에 떨어지면, 나도 지옥에 태어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입능가경(入稜伽經)에 있어서도 '저의 일체 선근을 버린 천제는 만일 모든 부처, 모든 선지식을 만나면 보살핌을 일으켜 여러 선근을 내고 열반을 청하리라(證)' 하고 밝혔는데 이것은 그 제불(諸佛), 선지식(善知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대비천제(大悲闡提)라는 뜻이다.

따라서 본 예문은 보살의 서원이 모든 일천제에게도 깨달음을 얻게끔 서원하고 있는 내용이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가산불교대사림’ 10권 발간

‘보살계본’에서 ‘분비’까지

가산불교연구원(원장 지관)이 최근 불교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림> 제10권을 출간했다.

제10권은 ‘보살계본’에서 ‘분비’에 이르는 4000여 항목 불교용어를 수록했고, 종교 · 역사 · 철학 · 문헌학 · 문학 등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전 항목에 걸쳐 종합적이고 다각적 시점을 최대한 확보해 서술했다.

<가산불교대사림>은 전 18권, 세계 최다 표제어(15만)를 수록한 불교종합사전으로, 연인원 1만1000여 명이 200여억원 예산을 들여 편찬하고 있는 대작불사다.

1982년 지관 스님(가산불교연구원 원장)이 ‘한국불교 술어의 본격 결집’을 발원해 시작된 사업은 1999년 제1,2권 발간 이후 매년 1~2권 사전이 꾸준히 편찬되고 있다. (02)765-9602

조동섭 기자

“2등국민 대접, 불자들 어떡하나?”

박광서 교수,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 기조강연

종교편향을 저지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종교의 권력화가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다. 개신교가 정권과 유착한 종교권력화 현상 속에 많은 불자들은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7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개최한 하계워크숍에서 박광서 교수(서강대)는 기조강연했다.

박 교수는 “한국만큼 비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불편한 나라는 없다”며, 사회전반에 만연된 종교편향 사례를 들어 종교차별과 인권침해라 토로했다. 박광서 교수는 “정치사회적으로 불교가 제 구실을 못해 벌어진 일이다. 동남아와 티베트의 활발한 참여불교에서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교가 새롭게 제자리를 찾으려면 주인의식을 갖고 불교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불자들의 의식화와 단호한 결단만이 2등국민 대접을 면하는 길”이라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진관 스님, 고구려사 연구서적 발간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



일본의 독도침탈과 중국의 동북아공정 등 열강의 역사왜곡이 심각한 때 고구려사 연구서적이 불교계에서 발간돼 눈길을 끈다.

불교계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인 진관 스님(사진)은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중 연구성과를 모아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경서원 刊)를 출간했다.

진관 스님은 “고구려사에 대한 불교계 최초의 연구”라 자평하며, “고구려 건국과 고구려 불교사 연구는 불교사의 올바른 정립을 시도하는 길”이라 설명했다.

스님이 분석한 고구려 융성의 핵심은 ‘호국 불교’ 이념이다. 진관 스님은 “고구려 때 불교는 ‘호국’ 이념으로 단결해 강력한 국가와 광활한 영토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수나라 200만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 등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제대로 된 고구려사 연구를 위해서는 왜곡된 불교사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교사상사에 의한 불교역사학과 개설을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광해군은 불심 깊은 군주”

남양주 봉인사, 광해군 추모제 및 기념학술대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노무현 前 대통령에 비유되는 광해군도 불교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지나친 가설일까? 조선왕조에서는 광해군이, 대한민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개혁적이었다는 공통점과, 각각 적자가 아닌 후궁의 서자로, 고졸 출신 비주류로 집권했다는 점 등에 사람들은 광해군과 노무현(前 대통령)이 닮은꼴이라 여긴다. 집권 6개월임에도 종교편향, 경기침체 등 사회전반에 적신호가 켜지며 이명박 대통령은 반정을 일으킨 인조나 폭군 연산군에 비유됐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광해군과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선문화학회(회장 이평래)와 봉인사(주지 적경)가 공동으로 8월 2일, 남양주 봉인사에서 제367주기 광해군 추모제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김경집 교수(진각대), 한상길 연구교수(동국대), 고영섭 교수(동국대),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 황인교 교수(동국대), 윤기엽 연구교수(동국대), 송묵 스님(봉선사) 등이 참석했다.



8월 2일 남양주 봉인사에서 열린 선문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중인 김경집 교수(가운데)와 좌장을 맡은 혜월 스님(왼쪽), 논평자 한상길 연구교수(오른쪽).

광해군 원찰 봉인사의 창건 연대

봉인사는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에 대한 효성을 연원으로 한 원찰이다. 폐허로 남은 곳을 1979년 故 한길로 법사가 복원불사 했다. 현재는 조계종 봉선사 말사로 등록돼 적경 스님이 주지로 있다.

김경집 교수(진각대)는 ‘광해군의 불교관과 봉인사의 창건’ 논문에서 봉인사 창건 연대를 기존에 <봉선본말사지> 등을 통해 알려진 1619년보다 빠른 1613년(광해군 5)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광해군 당시 대재의 증명법사로 활동한 부휴 선사 행장을 근거로, “1613년, 광해군이 공빈 김씨를 모신 성릉의 원찰로 봉인사를 창건하고, 대재를 설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논문을 논평한 한상길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도 부휴의 비문 <홍각등계비명병서>를 들어 김경집 교수의 1613년 창건설을 지지했다.

반면에 ‘봉인사의 한국불교에서의 위치’를 발표한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1619년 창건설을, 적경 스님(봉인사 주지)은 부친 故 한길로 법사의 증언을 토대로 고려 우왕 창건설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불심 깊던 광해군

지극했던 효심 이상으로 광해군의 불심이 깊었다는데는 발표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김경집 교수는 “1619년 중국 사신이 가져온 사리 1과를 물리치라는 대신들의 종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은사로 보내라했다”며, “광해군은 배불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영섭 교수는 봉인사가 국가의 공식지원이 끊긴 조선시대에 임금의 지원으로 지어진 대표적 원찰이라는 점을 들었다.

황인규 교수는 발표논문 ‘광해군대 불교와 성릉의 원찰 봉인사’에서 ▲청허 · 부휴 등에게 법호하사 ▲김직재의 무옥사건 ▲성지와 인경궁의 역사 등을 근거로 “광해군은 호불 군주였으며, 부휴 스님의 문도들은 광해군의 정신적 후원자였다”고 주장했다.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도 ‘광해군의 한국역사에서의 위치’에서 <권수정혜결사문> <계초심학인문> <간화결의론> <선원제전집도서> 등 광해군대 불서간행을 근거로 견해를 더했다.

부휴 선사 재조명과 광해군 재평가 주장도 이어져

이덕진 교수는 “인조반정 후 집권한 세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고 전제하고, 은광(銀鑛) 개방 등으로 상공업을 중시하고, 명과 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추진한 점 등을 들어 재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방룡 교수(충남대)는 ‘봉인사 고승 부휴선수의 사상과 그의 법통관’에서 부휴 선사의 사상과 봉인사를 학술적으로 고증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추모제에서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은 <시경>의 ‘조상을 추모하는 것은 덕을 실천하는 것(毋念爾祖聿脩厥德)’이라는 구절을 인용해 “옛것, 옛사람을 기리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새로운 힘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 말했다. 스님의 설법처럼 광해군과 봉인사를 기린 한국선문화학회의 행사가 불교학계와 사학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낙산사 옛모습대로 복원 가능해져

국립문화재硏,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문헌기록만 전해졌던 양양 낙산사의 옛모습이 관련 유물출토로 확실해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7월 31일, 낙산사 발굴조사를 마치고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낙산사 발굴조사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원통보전(중심법당)과 주변지에 대해 진행됐다. 발굴조사 결과, 중심 건물지(현 원통보전)는 고려시대부터 2005년 4월 산불로 소실되기 전까지 다섯 시기에 걸쳐 중창됐으며, 조선시대 세조 때 최대 규모였음이 밝혀졌다. 중심 건물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 8기의 건물지는 김홍도가 관동팔경 여행 중 그린 사생도 중 하나인 ‘낙산사도’의 건물지 배치 형태와 유사해 18세기 낙산사 가람 배치 형태도 파악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문헌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지던 낙산사가 이번 발굴을 통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실과 중창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법맥을 유지한 천년 고찰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7월 31일 발간한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스로 닦아 증험하기
수원사 불교교리 및 수행법 강좌 수강생 모집
수원사 불교교리 & 수행법 강좌는 초보불자와 신행생활을 다년간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이 아닌 몸과 마음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닦아서 정과를 증득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강좌입니다.
기본적인 불자예법의 습의에서부터 감동적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재조명,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부처님의 아들딸로서 법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수행의 세계로 이끌어 드립니다. 절수행법, 주력(토음 · 육자명), 참선(사마타 · 위빠사나 · 소지관 · 대지관 · 대광명 · 대원만과정 · 화두선), 염불기도법(공과 삼매체험 · 자동염불 · 관불 · 청불 수행), 밀종의 몸 다스리는 법 등 실질적이고 자세하게 불교의 다양한 수행의 문으로 안내해 드리며, 스스로 득력하여 환희로운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립니다.
그간 책과 법문을 통해서만 접했던 부처님의 교리(가르침)를 불자여러분 스스로 닦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법의 인연을 놓치지 말고 널리 동참하시길 권선합니다.


■ 모집요강
• 강의기간 : 3개월 (11주 강의) • 강의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강의장소 : 수원사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
• 법사스님 : 성관스님, 지행스님 • 입 교 식 : 9월 7일(日) 오후 2시
※ 어린이들을 위하여 탁아방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 강좌 수료식 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계를 받습니다.
■ 원서교부 및 납부방법
• 구비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반명함사진 1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원사 1층 총무과 • 수 강 료 : 10만원(2회 분납 가능)
• 납부방법 : ①수원사 총무과에 직접 납부 ②온라인 입금 후 담당자에게전화통지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7-291457 (대한불교조계종 수원포교당)〉
• 문 의 : 수원사 총무과 (031-245-9670 ~ 2)
대한불교조계종 수 원 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번지 ☎031)245-9670~2

공생선원 가을 개강

혜거큰스님께 듣는 금강경
• 법 사 : 혜거큰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날 짜 : 9월 4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참선입문 (선문촬요) 참선반 (육조단경)
• 법 사 : 무각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날 짜 : 9월 2일 참선반 / 9월 3일 참선입문
※ 청년법회(금강경오가해)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



중국문명의 안내서



진시황제의 무덤
웨난 지음 • 허유경 옮김
크림슨 펴냄 | 1만4000원

진시황제의 테라코타 군단이 부활한다.

2000년 이상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온 진시황릉 6 · 7호 갱의 발굴 성과를 다양한 삽화와 함께 실은 중국문명 안내서이다.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통치력을 보여주는 진나라의 축소판인 무덤에서 출토된 자료는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역사적 기록의 일화를 뒷받침 한다.

<진시황제의 무덤>에서 발견된 문관용은 진나라 고고학 연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진시황릉을 발굴한 지 근 30년만의 중대한 수확중 하나라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그 전까지 발견된 병마용 위주의 방대한 군진이 진나라 제국의 정치 · 경제 · 문화를 완전히 대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 최초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고고문학가로 그의 작품에는 역사와 현실이 함께 녹아 있다. 고대와 현재를 넘나드는 사건과 일화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가연숙 기자**

74편의 일기를 담은 시집



그늘의 발달
문태준 시집
문학과지성사 펴냄 | 7000원

'눈물은 웃음을 젖게 하고 그늘은 또 펼쳐 보이고 나는 엎드린 그늘이 되어 밤을 다 감고 나의 슬픈 시간을 기록해요.'

소처럼 크고 맑은 마음의 눈을 지닌 시인 문태준이 잠시 꿔온 빛으로 써내려간 슬픈 시간의 기록을 시집으로 엮었다. 등단 14년 만에 펴낸 네 번째 시집은 74편의 일기를 담았다.

<그늘의 발달>은 느슨하고 유연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누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얽힌 잃어버린 시간의 파편으로 천천히 귀화한다. 까만 염소가 되고 싶어 하던 아이는 그 시간의 기억을 맴돈다. 아버지가 고향집 감나무를 베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지붕이 돼도 좋겠다' 며 '삶이란 결국 그늘의 발달을 부르는 일' 이라고 고백한다.

시인이 조명하는 시어의 세계는 평화와 정감이 가득하다. 삶의 깊은 곳을 관통하는 소용돌이는 나와 나의 세계를 감싸는 그늘로 교차된다. '나의 하루가 또 그늘을 짓고 말았다' 는 시인의 말처럼 물러나는 빛과 물러나는 어둠의 시간에 서성인다.

조금씩 들어서는 빛처럼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소리가 창문에 들어설 때 맥박의 미동을 즐기는 그 시간이 황홀하다. 시인의 낮선 호흡은 탈문법화되고 탈서정화 되고 있는 현대 젊은 시의 추세에 동요하지 않는다. 묵묵한 소처럼 향수의 길을 산책하는 방식이다. 느리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 힘 있는 그의 시어들은 눈물을 달고 어룽어룽 바람 속에 흔들리다 문득 내 뒤에서 그림자가 된다. **가연숙 기자**



성품 깨닫는 순간 섬이 된다



'파도소리를 타고 들어가라. 길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바다는 여름날 들뜬 기운을 차분하게 하고 섬들은 가부좌를 틀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 하늘과 바다는 도장을 찍은 듯 하나로 만나 안과 바깥이 한 결 같이 둥글어서 꿰맨 흔적 없는 마음인 듯 그대로 본래면목을 드러낸다.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려 돌이켜 화두를 든다. 그 자리에 바로 부처가 출현하는 까닭이다. 자성의 바다에 굽이치는 파도를 통해 한결같은 성품과 교감을 나눠온 일선 스님(금천선원 선원장)이 섬 속에 또 하나의 섬으로 살아가며 돌이킨 화두의 본래 자리를 글로 엮었다.

수행이란 참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송광사 수련법회에서 10년 넘게 좌선을 담당했고 소록도에서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닿는 섬 거금도 토굴에서 정진의 불씨를 다듬고 있다. 온몸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궁극의 길이다. 고뇌하는 몸부림이 힘겨워지는 순간 파도처럼 쉼 없이 들이대는 자성의 면모는 수행자에게 한 없이 투명한 거울이 된다. 허공과 같은 천연의 성품과 대면하는 순간이다.

"오직 자기를 회광반조 하여 일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수행의 확신을 지녔으면 합니다. 이 책과 대면한 사람 누구누구나 일시에 자기가 무너져 더 이상의 방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한결같은 어머니의 손길로 보담아 주는 관세음보살님의 해조음이고 싶습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황끝 희망을 암시하듯 에세이 <소리>는 인생의 겸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을 설하신 바도 인생이라는 끝없는 고행 속에서 나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 스스로에게 귀의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처음 섬에 오는 배에 오를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뛰어내리고 나니 법성의 바다에서 빈 배와 같이 물결을 따라 자유롭게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스님은 "파도소리를 통해 본 성품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섬이 된다"고 말한다. 형상의 바다를 보지 말고 마음의 바다를 보라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밀한 하심을 띄운다. 헤아릴 수 없는 밤을 홀로 깨어 있던 바닷가 몽돌은 파도의 법문을 헤아린 바다의 사리다.

누구나 꿈꾸는 마음의 고향에서 장엄한 파도의 물결 따라 삼매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라. 자성에 꽂히는 그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성스러움의 고귀한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인생의 고해에서 표류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진리는 경계에 여여한 마음의 주인에게 그 열쇠가 있다고 전하는 파도의 읊조림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산사 공양간 12곳 탐방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
이경애 글 • 하지권 사진
아름다운인연 펴냄 | 9800원

'겸허하고 고요한 시간, 새벽 5시 30분. 죽비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발우 공양이 시작된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밥에도 만 사람의 노고가 깃든다.'

장수의 비결은 제철 음식과 소식에 있다.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선한 재료로 만물일여(萬物一如)의 해답을 실천하는 산사의 공양간 12곳을 탐방한 에세이집이다. 음식으로서 설법하는 교화방편의 장 공양간에서, 그 곳의 문을 두드린 지 5년 만에 세상에 공개되는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이다.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은 산사 풍경과 어우러진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비법을 함께 제공한다. 간소하게 차려진 절집 밥상 위에 차려진 자연의 별미를 그대로 우리네 식탁위에 이동시키는 것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경건하다.

"재료도 구하기 쉽고 건강에도 좋은 본연의 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 몸을 위한답시고 비싼 돈으로 쓰레기 음식(Junk Food)을 사먹는 우매한 세상에 전하는 절집 공양간 소식이 기특한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저자 이경애(북촌생활사박물관 관장)씨는 속인의 기웃거림에 문전박대하던 공양주 보살의 호통이 사실은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전한다. 300년 넘은 선암사 청매실로 담근 장아찌를 '아삭' 맛보는 순간 깊은 맛으로 전해지는 신맛의 상큼함이란 명품중의 명품음식이기 때문이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3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정명	불교정신문화원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6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7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8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9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10	인연	정찬주	작가정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스님 !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8월 20일 수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8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8월 27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8월 28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의 역사적 이해②

우리의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인생과 길은 돌아본 위치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역사도 되새기는 시점에 따라 달리 보이죠. 이를 우리는 역사의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전통 퍼즐인 칠교놀이는 한 조각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는 서양퍼즐과 다르게 한 조각이 다양한 모양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역사 또한 칠교놀이 조각처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불교사를 해체해 다른 시점에서 재구성해보겠습니다.

강 사 : 조성택 (고려대학교 철학과 · 불교철학)
주 최 : 한국학술진흥재단
일 시 : 2008년 8월 2일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근대불교학의 해체 그리고 재구성

"본래 하나의 교단, 경전은 없었다"

 # 인도불교에서 시간과 역사의 부재

불교경전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evam me suttam ekasmin samaye: 如是我聞 一時佛在)'이라는 정형구로 시작됩니다. 보통 역사기록은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되지만 불교경전의 정형구에는 '언제(when)'가 불특정한 '한때(ekasmin samaye: 一時)'라는 말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점은 다른 고대 문화권 특히 한자문화권의 사건 서술과 크게 대비됩니다.

이는 불교의 시간관념을 보여줍니다. 윤회에서는 시간이 돌고 돌아 사건이 언제 일어났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벗어나, 윤회 속 인연으로 만난 찰나의 우주적 사건입니다.

불교의 초시간적 관념때문에 붓다의 역사적 일대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를 지닙니다.

붓다의 활동시기에 관한 정보는 아쇼카왕의 즉위연대에 근거합니다. 당시 마우리야 왕조는 그리스 등 주변국가와 국제교류가 빈번해 연대추정에 상당한 신빙성을 제공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쇼카왕의 즉위연대를 기원전 268~267년으로 설정합니다.

이 연대를 기준으로 붓다의 활동시기를 정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불교학계에서는 이를 각각 '긴연대'와 '짧은연대'라 부릅니다. '긴연대'는 상좌부 · 남방 전승 기록으로, 불멸 후 218년에 아쇼카왕이 즉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붓다의 80세 열반은 정확한 기록으로 받아들여져 붓다의 생몰연대는 기원전 566~486년이 됩니다. 한편 산스크리트 문헌, 한역경전 및 티베트자료에 근거해 북방에 전승된 '짧은 연대'는 불멸 후 100년에 아쇼카왕이 즉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짧은연대'에 따르면 붓다의 생몰연대는 기원전 448년~368년입니다. '긴연대'와 '짧은연대'는 118년 차이가 있고 학자들 간에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 근대불교학 검토를 통한 새로운 출발

역사와 시간의 공백 상황, 즉 불멸후 경전으로 기록되지 않고 구전된 시기를 메우고자 근대불교학은 출발했습니다. '신화'를 역사로 복구해야하는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방대한 불교문헌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빨리어 경전, 산스크리트 사본, 그리고 한문 및 티베트 대장경 등 다양한 문헌의 언어학적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문헌학은 언어학적 관련성을 밝히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됐습니다. 문헌학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700년 이상 인도에서 '사라졌던' 혹은 힌두교에 '흡수됐던' 고대 인도불교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대불교학이 재구성한 불교사의 기본 골격은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1. 불교는 하나의 교단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러 교단으로 분열됐다.
2. 현존하는 초기경전의 내용 차이는 본래 동일성을 바탕으로 했다.

근대불교학의 이런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근대불교학이 도달한 결론이나,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유럽문헌학 기초의 출발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대불교학은 브라흐마니즘(Brahmanism)의 구전전통이 초기불교 경우에도 그대로 '재현'됐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흐마니즘의 구전전통을 가능하게 한 몇 가지 선결조건들이 초기불교에 없다는 점과 불교교리상 브라흐마니즘 구전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대불교학의 근거는 흔들립니다.

'구전 전통'의 선결조건을 살펴보면 베다문헌이나 다른 브라흐만 전통의 텍스트가 전승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배타성'과 제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불교 전통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결여됐습니다.

'언어의 배타성'에서 브라흐만 구전은 텍스트 언어인 산스크리트 자체가 특정계급과 텍스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 '구전'으로 비교적 변형 없이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붓다 자신이 특정 언어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해당 지역언어를 사용하여 법을 설할 것을 제자들에게 권했습니다. 붓다 자신도 산스크리트가 아닌 마가다어의 한 종류인 아르다 마가디(Ardha-Magadhi)를 사용했듯이 불교는 시초부터 다양한 지방의 속어들로 설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온전히 전승되어온 스리랑카 상좌부 경전의 빨리어도 고대인도 지방속어 중 하나였을 뿐 유일한 불교 '표준어'의 역할이나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지방속어가 사용된 측면에서 완전한 구전전승은 불교에서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적일 것입니다.

'사회적 시스템' 또한 브라흐만 전통에서는 카스트제도처럼 신성한 텍스트 전승을 위해 고안된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초기불교교단에서는 붓다 입멸 후 200~400년 후 전승자료가 있을 뿐 붓다 당시 일정한 시스템에 의한 전승 자료는 없습니다.

위 두 가지 선결 조건 외에도 텍스트에 대한 관념이 브라흐마니즘과 불교 전통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브라흐만 전통에서 텍스트는 신성한 기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 자체로도 신성했습니다. 하지만 초기불교 전통에서 브라흐마니즘적 의미의 텍스트에 대한 관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브라흐만 전통이 전제하고 있는 '음성'의 신성한 힘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다 문헌의 신성한 기원과 암송의 자부심을 비판하는 내용들은 초기불교 경전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불교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이 구절은 붓다 사후에 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아난의 질문에 대한 붓다의 대답입니다. 일종의 유훈인 이것은 붓다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우며, 붓다의 사후 전개됐을 일련의 일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붓다 입멸당시 이미 많은 제자들이 아라한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후계자나 교단 운영에 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다만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로 아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왜 붓다는 교단의 '미래'에 대해 일체 구체적 언급 없이 '동문서답' 했을까요?

저는 붓다가 아난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상가(samgha, 僧伽)를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행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붓다는 자신이 '발견'한 법을 사후에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떤 제도나 조직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등명 법등명'은 붓다 사후 '법'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불교적이고도 가장 정확한 현실적 충고였습니다. 아난에게 건넨 "열심히 정진하라"는 마지막 유훈 또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됩니다.

법등명에서 '법(dhamma)'은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그 진리를 자신이 최초로 발견했다든지 혹은 자신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교(敎, sāsana)' 혹은 교법이라해 '법(dhamma)'과 구별했습니다.

여러 제자들을 다양한 표현과 방법으로 가르쳤듯이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도 자신들의 표현과 방법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둘이 가지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가르침(교법)이 하나가 아닌 여럿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봐도 근대 불교학이 전제하는 하나의 교단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초기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성전(聖典)의 종교'가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실천하는 '체험의 종교'였습니다.

초기부터 다양성을 지녔던 불교는 브라흐만처럼 텍스트를 통해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닌 수행과 실천을 통해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경전 속 저장기억으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속의 활력기억으로 가르침을 느낄 때 역사 속 붓다는 초역사적 법신불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화제집중
관세음보살 순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연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원, 삼재팔난 관재구설 병고액난 일시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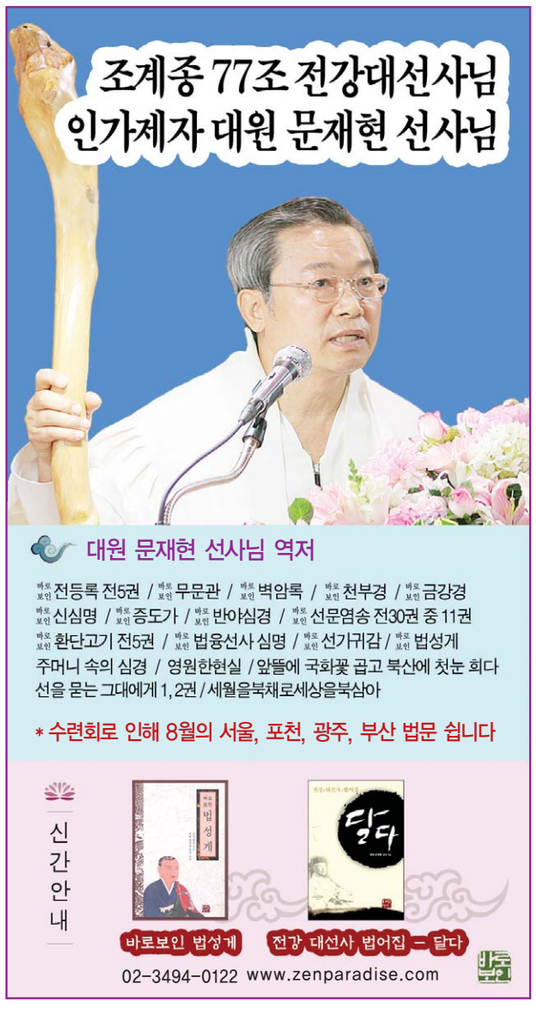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픽(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혜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봉 해동불교무량종 행
종 도 모 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송,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종지로 합니다

학성 (무량 대종사)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옥 (춘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혜엄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종훈 (광원스님)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재) 해 동 불 교 무 량 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 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입증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⑫

언어는 분별심의 표현일 뿐

云何語中修觀 應作是念 由心覺觀鼓動氣息 衝於咽喉唇舌齒齶 故出音聲語言 因此語故 則有一切善惡等法 故名爲語 反觀語心 不見相貌 當知語者 及語中一切法畢竟空寂 是名修觀 如上六義修習止觀 隨時相應用之 一一皆有前五番修止觀意 如上所說

어떻게 말 하는 가운데서 관을 닦아야만 하는가.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만 한다.

죽은 사람은 입이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내가 말하는 것은 분별심이 호흡의 기운으로 요동하여 언어 음성이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언어는 안에서 호흡의 기운이 움직여 목과 입술과 혀와 잇몸과 충돌하기 때문에 음성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지 않으면 말을 하고 싶은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알아야 할 것은 입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해서 말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단순히 입만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벙어리도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가.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은 입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음에서 분별심이 움직여 입으로 말을 할 때에 말을 하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보면 안으로 육근, 밖으로 육진, 중간의 육식 등 그 어디에도 실체라고는 없다.

따라서 말을 하는 마음은 그 당체가 즉공 즉가 즉중이다. 말을 할 수 있는 마음만 즉공 즉가 즉중일 뿐만 아니라, 말 가운데 일체 선악 등 언어도 역시 즉공 즉가 즉중이어서 필경 공적하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말하는 가운데 관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옛날 제2조(第二祖) 혜가(慧可)대사는 초조인 달마대사 처소에 이르러 칼로 팔을 끊으면서 신심을 보이고 법을 구하였는데,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서 달마대사에게 말하였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는 말하였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혜가대사는 답변하기를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얻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을 끝냈다."

이 경우가 바로 필경 공적한 지관의 의미와 서로 부합한다.

次六根門中修止觀者 一眼見色時修止者 隨見色時 如水中月 無有定實

두 번째로 육근이 육진을 마주하는 측면에서 수행하는 지관에 대해 밝히겠다.

최초로 발심한 사람이 지관을 수습하여 지관과 서로 호응하여 그 이익을 얻기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지관은 번뇌와 서로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분별심 · 언어의 실체는 당체가 공적

따라서 반드시 마음의 모든 번뇌를 놓아버리고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내 몸에 대한 집착을 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지관이라는 두 가지 법은 '집착을 타파하는 날카로운 도끼와 같고, 분별심을 없애는 강한 칼과 같으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다리이며, 번뇌를 제거하는 오묘한 약'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만일 하루 종일 지관을 잊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루지 못하고 생사를 끝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겠는가. 그 때문에 육근이 한 경계를 마주한 가운데 수습하는 지관을 가르쳐 생각 생각에 지관을 떠나지 않고 간단없이 공부하는 법을 환하게 드러냈다.

육근이 육진을 상대하여 지관 수행한다는 것은 안근이 색진을 볼 때 수행하는 지관으로부터 제육의근이 법진을 마주하면서 수습하는 지관까지를 말한다.

육근 가운데 첫 번째 안근이 색경을 바라볼 때에 수습하는 지관은 눈이 안근에 보이는 갖가지 색상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세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현색(顯色) 인데, 현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뜻이고 색은 형질의 장애가 있다는 뜻이다. 현색은 청황적백(青黃赤白)과 광명 그림자 어두움 연기 구름 티끌 안개 허공 등을 말하는데, 분명히 환하게 드러나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형색(形色)인데, 형은 형상의 의미이다. 장단방원(長短方圓)과 거칠고 미세하고 높고 낮은 것과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 등이 형색에 소속된다.

다음으로 표색(表色)인데, 표는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행주좌와(行住坐臥) 와 취사아 육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지만 이 비설 신 의근과 마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주함이 있는 색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볼 수도 없고 마주함도 없는 색인데, 이는 무표색(無表色)에 해당된다. 우리의 제육의식이 과거에 보았던 경계를 인식할 때에 그것을 낙사영자(落謝影子)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의식 속에 그림자로 떠오른 색이다. 대체로 전오진(前五塵)은 의식으로 명료하게 분별하기는 하지만 단지 의식 속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재한 색을 볼 수 없으며 역시 겉으로 드러나 상대적으로 마주함도 없다. 따라서 표현이 없는 색이라고 하여 무표색이라고 말한다.

지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서술한 갖가지 색을 눈가는 대로 따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허공 꽃이고 물속에 어린 달과 같아 있다 해도 실제 있지 않고, 있지 않다 해도 실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야만 된다.

若見順情之色 不起貪愛 若見違情之色 不起瞋惱 若見非違非順之色 不起無明及諸亂想 是名修止

만일 내 감정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색을 보면 마땅히 허깨비와 같고, 변화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알고 탐애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내 감정을 위배하는 증오스런 색을 본다 할지라도 진심과 고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또 내 감정에 위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색을 본다 할지라도 무명과 혼란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상에서 밝혔던 현색, 형색, 표색 등 갖가지 색 가운데 낱낱이 모두가 감정에 순종하는 색, 위배하는 색, 위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색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행자가 스스로 자세히 살펴야만 한다는 점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처(十二處)

'십이처(十二處)'는 일체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즉 인식주관인 육근(六根)과 인식대상인 육경(六境)을 말하며, 이 두 가지가 접촉하여 모든 정신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근은 안처(眼處) 이처(耳處) 비처(鼻處) 설처(舌處) 신처(身處) 의처(意處) 등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말하는데, 이를 '내육처(內六處)'라고 합니다.

육근에 상응하는 육경은 색처(色處) 성처(聲處) 향처(香處) 미처(味處) 촉처(觸處) 법처(法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 마주하는 육진경계에 해당됩니다. 이를 두고 '외육처(外六處)'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육근(內六根)과 외육경(外六境)을 합해서 '십이처'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십이처 가운데서 안이비설신 등 오색근(五色根)과 색성향미촉 등 오색경(五色境)은 오온 가운데서 색온에 포섭되는데, 이상의 십처(十處) 색법을 '십유대색(十有對色)'이라고 합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주관, 즉 육근과 상대적으로 마주 대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내육처 가운데서 의처(意處)는 식온에 포섭되며, 외육처에 해당하는 법처 가운데서 그 중 한 부분은 수온, 상온, 행온에 포섭됩니다.

또 법처 가운데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육종무위(六種無爲), 즉 여섯 종류로 나뉘는 출세간 무위법인 허공무위(虛空無爲), 택멸무위(擇滅無爲), 비택멸무위(非擇滅無爲), 부동무위(不動無爲), 수상멸무위(受想滅無爲), 진여무위(眞如無爲)는 세간유루생멸법인 오온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위법은 세간 오온법처럼 여러 개의 요소가 인연에 의해서 한 무더기로 집합하는 의미, 즉 생멸로 이합집산하는 모습이 없는 불생불멸의 절대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이처- 육근 · 육경

(1) 안처(色處)…… (7) 색처(色處)
(2) 이처(耳處)…… (8) 성처(聲處)
(3) 비처(鼻處)…… (9) 향처(香處)
(4) 설처(舌處)…… (10) 미처(味處)
(5) 신처(身處)…… (11) 촉처(觸處)
(6) 의처(意處)…… (12) 법처(法處)

■정리=張如舟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부부솔루션등 출연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HT)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제, 최면요법 등
빙의치유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테이프 보내 드립니다. 테이프 발송비 10,000원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 1544~2741 대전 042)222-0737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사동 서대전역7번출구 청운빌딩2층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작,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수치의 비밀 ◆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8. 23(토) 오전 9시 ~ 8. 24(일) 오후 1시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호스피스 요양원
엄마같은 정성으로 함께
할 주방장 1명,
주방보조 1명을
모집합니다
043)298-2258 (청주)
011-9732-8562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불교전통 불공의식(범음범패)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
각종불공
(바라춤,충무,호접)
010-2200-817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 1, 주방, 거실, 욕실
/ 방 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 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사주학 · 매화역수 강좌
개인지도, 책임지도
평생운,연운,월운,일운,건강운,
빙의까지 정확히 적중시키는
수리학의 비법을 전수합니다.
(1개월 완성)
02)747-9136
011-307-2975

역학무명건강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1.구궁 당 주역/간단 비법 전수
2.난치병(스트레스,,비만,혈압,당뇨,암..)
근본치유 예방, 무병 건강 양생법전수
052)264-8183
011-855-8180
신불 건강 도인촌 무구 합장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사찰 같이 하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명리학의 대가(30년)
수강생을 모십니다
(속성 3개월 과정 /
철학원 운영 중)
011-9344-2048

入山61년 雲水33년
이제야 비로소 入息 出息
自覺케 되었더이다
實參과 活句로써
전법 교화할
포교도량을 찾습니다
(대소불문)
011-9752-1080

사람은 누구나
다 如來藏佛임을 自覺하고
入息 出息 修行하면
無位眞人이 되어
이 오탁악세에 오히려
영원한 숨을 얻을 수 있으련만
011-9752-1080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행 자 모 집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암자
031)774-47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 - 65세)
▷보시금 월 100만원
010-7160-27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위치 : 경주
054)748-35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경북안동
054)858-26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찰에 거주하실 분
(나이: 50-65세이하)
▷범어사 금강암
051)508-4509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부전스님, 행자
모십니다
(전통사찰 조계종)
031)528-8780

세수 62세 비구가
무보시로
주석할 경관좋은
사 · 암을 찾습니다
(모든제반의식가능)
011-9429-5786

비구니부전스님
공양보살님
모십니다
032)433-514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리)
▷수정사
031)333-5014

어르신을
모십니다
(편리한 교통,수려한 자연환경)
031)333-50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속초
010-9866-7930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수 중 촛 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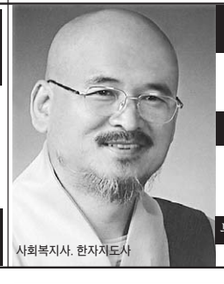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 (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묘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 TVbuddha.co.kr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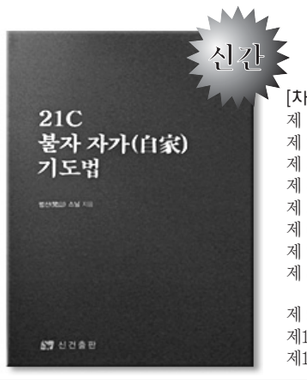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 202호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
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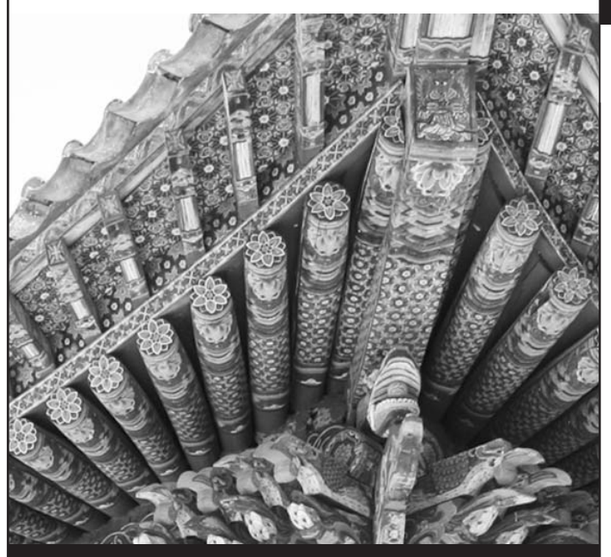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치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기도도량(울산)
● 대지 2000평, 주차장 300평
● 법당 40평(기와지붕)
● 요사채 30평+20평
● 지장전 및 산신각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 9억

● 위치 : 양산(마당 넓은 절)
● 부지 6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40평+20평 산신각 5평(목조)
● 5층 탑, 뒷산 아름다운 절
버스진입 가능,주차장 완비
● 양명현 탁트인 전망
● 가격 : 8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법당 : 15평
● 요사 : 6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북
● 법당 및 요사 : 7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최고의 시설(포교원)

● 위치 : 경북 대구 바로 옆 경산시 중심가, 교통의 중심가, 주차장 완비
● 5층(엘리베이터) 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신중탱화
● 평수 : 80평(법당 40평 마루), 방3개(주지실, 사무실, 주방) 후원
● 시설비 3000만원, 월70만원.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2051-670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남 담양
● 법당 10평
● 수익성 사업체 가든
70평 포함, 주차장 500평
● 대로변 위치 최고
광주광역시 10분거리
● 합 5천만원
010-5262-554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3층건물중 3층(불교대학운영중)
● 평수 : 108평
● 법당,종무소,대중방4,
화장실 2개,욕실완비,
옥상사용가능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4802-5288
011-9538-445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최고 중심지
● 4층건물중 4층(60평)
● 법당(40평)
아미타불 삼존불(동불)
● 방2개, 거실,욕실,
대형에어컨,엠프시설완비
● 가액:보증금 500만원,월 30만원
시설비 3천8백만원(절충가)
010-4583-695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9725-3196
011-9108-5589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011-9928-0005
061)544-04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 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0-3112-3513

절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 총평수 1706평
● 주변 산세가 수려하고
지세가 아주 좋아
명당절터자리임
● 가액은 2억
(답사후 절충가능)
011-9324-473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중구부락 210번지 금병암
● 평수 : 대지 총69평(일반주택)
● 법당 15평,삼성각2평,방4
● 가액:1억 3천만원
055)744-6188
010-4871-27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18평
● 삼존불,지장보살,신중탱화,
소불 모셔져있음
●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5512-3481
052)235-6573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포교당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시장통
● 평수 : 40평 3층건물중 2층
● 즉시법회가능(10년운영중)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지스님 건강문제로 급히 안내
010-4397-7772

큰 절 받 으 소

● 위치 : 주왕산 국립공원內
● 평수 : 법당12평(목조)
요사채26평, 산신각 2평
종교부지 340평
임야 1230평
010-7109-32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대흥동
● 평수 50평 3층중 2층
● 법당 방3 해우소2
공양간 등 아파트식구조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54)281-1147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임암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 삼성각,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 7천만원
054)858-9628~9
019-377-8967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석포리
● 밭 3,200평. 백두대간 자락
● 포장 진입로. 약수 있음
● 가액 : 6천만원
* 토굴이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6-9707-3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감악산(柑岳山)내
● 풍광 수려 대작불사 대가람 최적지
● 임야 4380평 유실수-감, 밤, 주목, 다수
관리지역"종교부지"허가 500평-현재대작불사중
● 법당 25평(예정) -다글라스 목재 구비
화엄성중전 10평 법당왼측(알마시카목재)
지장전 15평, 관음전 15평, 요사 25평
(3채증축예정)
● 토목공사 완비 지주석-자연석 완비
● 요사 15평조립식(방4) 창고개조-5평(방사2)
전원주택 1동-건평 15평(방사2대지100평
8평 조립식(방사2, 창고1)
● 원력 높은 스님 분께는 절충가능합니다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4억 2천만원
010-5547-1518
010-4001-3415

명당자리 절터

● 위치:충남 공주시 유구읍
● 옛날부터 동리 이름이
불당골에 부처집골
● 바위 밑에 우물좋고 지대가
높고 전망 좋음,돌탑도 있음
● 8천평, 평당 1만7천원
019-386-7922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 법당 같은 임법당. 방3개.
● 입식 주방. 수세식 화장실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8천만원
010-2633-55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7분거리)
● 2층건물 2층 (20평)
● 법당, 산신각, 방1, 공양간
● 가액 : 보증금 400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8729-7222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
(천안아산역 5분거리)
● 신상가 건물 75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41)565-9111

도심속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봉천동
서울대 전철역 10분거리
● 1층 법당, 거실, 주방 /
지하 식당 활용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4640-95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 3층건물 50평
● 삼존불 외 소불 108,
목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016-339-1628
032)504-34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부근
● 대지 : 220평 ● 가액: 5억원
● 건물 1층 요사채 47평
●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
● 차고15평 심야전기
011-9114-993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산읍
면소재지 바로옆동네
● 100여가구 사는 마을 맨
뒷집(산자락)
● 대지 : 380평 임법당 40평
(살기좋은곳)
※직접 방문해 보시면 첫눈에 ok
● 가액: 7000만원
011-621-9549

임 법 당

● 위치 : 양산시 통도사부근
● 대지 32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5평
방3, 거실, 공양간
2층 법당 20평 친견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아미타 지장관음신중
● 텃밭있음
절앞 버스정류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집기일체 양도
시설비 2200만원
010-6460-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1층 요사채,
2층 20평(조립식)
● 별도 요사채 기와집,산신각 1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8천 5백만원
010-6288-9777

포교당 안내

● 위치 : 구미포교당
● 3층 100평
● 삼존불, 약사불, 탱화, 호신불
● 방사 4개 최신식 욕실완비
● 3500만원 (보증금 포함)
010-2013-00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동구 일산동
바닷가 인접 ● 평수 : 60평
● 포교 최적지, 시설완벽
● 보증금 3천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1-527-700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경동시장
● 평수 : 25평, 시설완벽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유동인구 엄청많음
● 명리,역학 완벽한자 환영
02)966-668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모종동
(온양 온천 터미널인근)
● 평수 : 빌라 2층건물중(2층 23평형)
● 방3,거실,욕실(대지지분 17평)
● 법당 : 관세음 보살봉안, 인등, 탱화
● 가액 : 4천만원(시설비 포함)
● 특징 : 년말 수도권 전철 개통예정
041)533-0853
010-3011-0853

토굴(급)안내

● 위치 : 보령. 종중 땅
● 방2, 창고1, 주방
● 대지 80평, 건평 25평, 한옥
● 가액 : 1,300만원
010-4773-1471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 대지 120평, 법당 15평 삼존불, 요사채
● 50년된 사찰로 국도변. 5분거리 교통편리
● 가액 : 6천만원
010-2630-0192

사찰(터)안내

● 위치: 양산시 하북면 백복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 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055)867-16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마산시 산호동 산호시장앞
● 평수 30평, 2층 단독
● 삼존불, 신중탱화,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001-8476
055)232-7151/055)243-37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층건물 50평
● 삼존불외 소불 108목후불 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032)504-3467 016-339-162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제원사
● 법 명 : 묘각(배연우)
● 등록번호 : 제277호 / 승려번호 : 1205-319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2동 1460-38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법하

산문 들어서면 등불처럼 환한 백련이 한가득

(102) 창원 불모산 성주사

낙남정맥은 지리산 영신봉에서 낙동강 남쪽을 가로질러 김해평야에 이르는 산줄기이다. 이 산줄기를 등에 지고 사천-진주-마산-창원-진해-김해 등이 남해안에 접해 있다. 인구 40~50만을 자랑하는 도시들이 띠를 이루고 있는데도 이 지역엔 이렇다 할 명산대찰이 없다. 명산대찰은 수려한 자연풍광과 함께 세월의 이끼가 앉은 문화유산이 있어야 한다. 그나마 불모산은 낙남정맥 중에서 오지랖이 가장 넓고, 성주사는 이 지역에서 사세가 가장 큰 절로 꼽힌다.

낙남정맥의 산들은 모두가 800m 미만의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해발 802m 창원 불모산이 가장 높다. 불모산은 낙남정맥이 함안 여항산에서 김해 분성산으로 달리던 도중 창원과 김해 경계에서 남진해 내려간 지봉 가운데 하나이다.

성주사의 창건 인연은 멀리 가야국 초기에까지 닿지만, 신빙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사적기>에 보이는 신라 하대 무염국사(낭혜 화상) 창건설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염은 충남 보령에 성주산문을 연 바로 그 인물이다.


성주사 연꽃.


고추나물.


늑대거미.


자귀나무꽃.

외래종 연꽃·송엽국은 사찰 조경용으로 부적절
등산로 폐쇄·계곡 입장 제한으로 자연생태 호전

성주사는 임진왜란 이후 전소된 절을 중건할 때 곰이 나타나서 목재들을 운반해주었다고 '곰절'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무염국사가 세운 보령 성주사 앞 개울이 곰내[熊川]이고, 인접한 곳에 웅천읍이 있는 것을 보면 곰과 성주사의 인연은 훨씬 더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조선 중기 무렵, 곰이 불모산에 서식했을 가능성은 생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주차장에 내리면 도로 옆으로 철망에 둘러쳐진 계곡이 울창한 숲속에 감추어져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창원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찾아들곤 했던 곳. 지금은 상수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금지 철망을 성주사 위쪽까지 쳐놓고 출입을 막고 있다.

산문을 들어서면 왼쪽 백련지에 백련이 그득하다. 연꽃은 인도와 이집트를 비롯해 아시아 남부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다. 연꽃은 인도에서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 전수되었고, 삼국시대에 우리 유학승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으로 전한다. 연꽃은 색깔로는 백련과 홍련으로 구분된다.

근래 절집에 외래종 연꽃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와 사찰에 번지고 있다. 외래종 연꽃은 대개 색깔들이 혼란스럽고 자극적이며, 모양새도 가지각색이다. 상대적으로 우리 연꽃의 이미지에 흠집을 주고 있다.

성주사 주변의 여름 곤충은 잠자리, 매미, 나비 등이 주류를 이룬다. 백련지 주변에 잠자리와 소금쟁이 등 수변곤충들이 눈에 많이 띈다. 여름날 성주사 주변에 보이는 잠자리로는 큰밀잠자리, 노랑허리잠자리, 고추좀잠자리, 깃동잠자리, 물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등이 보인다. 파리매와 알락하늘소도 성주사 경내에서 관찰된 것들이다.

파리매는 육식을 하는 파리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날파리를 비롯한 작은 곤충에서부터 몸집이 큰 곤충까지 사냥한다. 성주사 계곡에는 버드나무가 많아서 알락하늘소가 자주 관찰된다. 알락하늘소는 몸에 윤기가 나는 검은색이며, 노란 점들이 등짝에 흩어져 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1990년에 조성했다는 새 석탑이 우뚝하다.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지만, 지세의 허약을 보강하기 위한 비보탑으로 보인다.

계단을 올라서면 돼지 석상 한 쌍이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성주사 앞산이 풍수적으로 뱀의 형상이기 때문에 상극(相剋)인 돼지상을 세웠다고 한다. 이 전설 속에는 사찰의 화재를 막는 벽사론이 깔려 있다. 뱀은 불[火]을 상징하고, 돼지는 물[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경내에 바다 속에 산다는 해태상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성주사 가람배치는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연계성이 없어서 저마다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다. 가람배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대웅전도 제 자리가 아닌 듯하고, 대웅전 중건 후에 전각들을 생각 없이 임의로 앉히다보니 전체 배치가 기형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후대에 지은 대형 건물들이 모두 시멘트 건물이다 보니 전각의 전통성마저 무시되어 버렸다.

대웅전 옆 영산전 안에는 탐스런 수박을 들고 있는 동자상이 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수박은 중동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 전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몽골로부터 전해졌다. <회심곡>에 '모래밭에 수박 굵듯 둥글둥글 자라거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날씨가 무더워서인지, 영산전 뒷그늘에 먹그늘나비들이 모여들어 미동도 없이 오수를 즐기고 있다. 성주사 주변에서 관찰된 나비들로는 긴꼬리제비나비, 산제비나비 등이 있다.

경내에는 연못이 많다. 아래쪽에 있는 백련지를 비롯해 분수가 있는 연못과 지장전 옆에 있는 방지(方池) 등 모두 다섯 곳에 연못이 있다. 연못을 많이 둔 것은 효율적인 방화를 위해서일 것이다.

연못에서 관찰된 늑대거미는 거미줄을 치지 않는 배회성거미이다. 죽은 듯이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갑자기 습격하는 늑대의 습성을 닮아서 늑대거미라고 한다. 그러다가 큰 적을 만나 위협을 느끼면 물위를 뛰기도 한다. 암컷은 공처럼 생긴 알집을 꽁지에 달고 다닌다.

지장전 뒷숲 가장자리 습지에 무당개구리 몇 마리가 물속에서 멱을 감고 있다. 성주사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로는 청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 정도이다. 파충류의 경우도, 뱀산이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종류도 적고, 개체수도 많지 않다. 모니터링 기간 중에 유혈목이와 쇠살모사만 각각 1개체 관찰되었다.

지장전 소대에서 검은 연기가 끝도 없이 풀풀 나고 있다. 망자의 화학섬유 옷이나 플라스틱 액자나 신발 등은 불에 타면서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을 만들어 낸다. 다이옥신은 공기와 물과 흙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이제는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이다.

정와(靜窩)와 매점은 입구 쪽 독립된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경내에서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데다 포장된 길이 가로질러 있어서 성주사와는 별개의 건물처럼 느껴진다.

정와 앞 계곡 위에 무지개다리가 걸려 있으나, 상수원지역이라 철책으로 통행을 막고 있다. 계곡은 불모산 산세에 비해 규모도 작고 수량도 적은 편이다. 서식하는 어류도 버들치 한 종류에 불과하다. 계곡엔 달뿌리풀이 쑥대머리처럼 군락을 이루며 덥수룩하게 덮여져 있다.

경내에 조경으로 식재된 초본들로는 원추리, 참나리, 맥문동, 부처꽃, 붓꽃, 꽃창포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석축에는 사철채송화가 부케처럼 화려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명 송엽국이라고도 하는 사철채송화는 남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귀화원예식물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봄부터 여름까지 연이어 핀다. 절에서 조경용으로 많이 심고 있지만, 산중사찰에서 외래종 화초를 심는 것은 권장할 바가 못 된다.

예전에는 등산객들이 성주사 경내를 통과하여 불모산을 오르곤 했으나, 지금은 철문과 철망을 쳐서 등산로를 폐쇄한 지가 여러 해 된다. 거기다가 계곡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까지 제한하다 보니 불모산 서사면의 자연생태가 크게 호전되었다.

출입통제 된 불모산 서사면의 초본으로는 고추나물, 여로, 며느리배꼽, 붉은토끼풀, 술패랭이꽃, 여로, 오이풀, 타래난초, 하늘말나리, 가는장구채, 노루오줌, 닭의장풀, 뱀무 등이 꽃을 피웠다.

고추나물은 우리나라 원산으로, 주로 남부지방에 핀다. 50cm 정도의 줄기에 잎자루 없는 잎이 마주난다. 노란 꽃이 피는데, 당일 사그라진다. 가을에 열매가 스스로 터져서 종자를 퍼뜨린다.

불모산 서사면의 숲은 참나무류와 소나무가 중심이 된 혼효림이다. 남방계 목본으로는 예덕나무, 대팻집나무, 합다리나무, 사스레피나무, 소사나무, 노각나무, 비목나무, 사람주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군락을 이루는 나무는 주로 참나무들이며, 노각나무도 성주사 계곡 위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불모산의 조류는 성주사와 계곡 주변에서 자주 관찰된다. 종의 다양성이나 개체수에서는 800m급 내륙의 산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육추(育雛)와 이소(離巢)를 마친 즈음이라 뻐꾸기나 꾀꼬리 등 여름새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불모산-웅산 일대는 낙남정맥 가운데 가장 큰 산체를 이루고 있지만, 창원, 진해, 김해, 부산 등 큰 도시들이 외곽을 둘러싸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게다가 창원시역(市域)의 확장과 부산과 마산을 잇는 도로망 확장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산계와 생태적으로 단절된 상태이다. 그래서 멧돼지 같은 대형 포유류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 처해있다.

현재 성주사를 거치지 않고 불모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주차장 아래쪽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 있다. 불모산 정상에는 군사시설과 방송중계탑이 세워져 있다. 그 때문에 도로가 정상부까지 개설되어 있다.

불모산에서 2km 능선을 타면 전설의 웅산(670m) 정상에 닿는다. 벚꽃 피는 계절이면 웅산에서 진해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광경이 아름답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제4기 카이로 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클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 · 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2008년 8월 16일 오후 1시 (공개강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최면으로 전생,현생,미래생 탐색 · 나를 찾는다
전생·빙의·자기 최면·치료 최면

전생 · 빙의

• 최면의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최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개강일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공개강의)
교육기간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 과정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교육비용 5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자기최면/타인최면/기억력, 집중력 증강/우울증 해소/대인공포/성격개선/스트레스/수면장애/빙의/전생/금연/금주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이용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웃음보살 불등거사 <10>

구성 : 김흥인



물 속의 그림자 [백유경(百喩經)]



어리석은 사람이 큰 못에, 물 속 순금의 그림자를 보고는 "금이 있다"고 외쳤다. 곧 물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면서 금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조금 있다가 물이 맑아지자 금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다시 들어가 진흙을 헤치고 찾았으나 또 찾지 못하고 지쳤다. 아버지가 연유를 물으니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물 속의 그림자를 보고, 그 금은 나무 위에 있는 금인데 그 그림자가 물 속에 나타난 것임을 아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것은 반드시 새가 금을 물고 가다가 나무 위에 둔 것일 게다." 그는 아버지 말을 따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금을 얻었다. 어리석은 저 범부들도 무지하기 그와 같다. '나'가 없는 다섯 가지 쌓임 가운데 제멋대로 '나'가 있다 생각하나니 저 순금 그림자를 본 사람이 부지런히 애써 그것을 찾았으나 한갓 수고하고 소득이 없음과 같아라.

옛 판화의 세계

병을 고치려 천신에 제사지내다
사천우불(祀天遇佛)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말과 소, 양, 돼지 100마리씩을 천신에게 바치고 제사지내려는 왕을 제도하는 부처님과 대중들의 모습으로 짜여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다.

변경 지방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하목이라 했다. 하목은 외도를 받들어 섬겨 온 나라가 사교를 믿고 살생해 신에게 제사드리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왕의 어머니가 병으로 누운 지 오래됐으나 낫지 않자, 왕은 한 바라문을 불러 "내 어머니께서 병환에 시달려 오랜 시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데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바라문이 대답했다. "하늘의 별자리가 거꾸로 잘못돼 음양이 조화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에 왕이 물었다. "어떤 방법을 쓰면 어머니 병환을 치유할 수 있는가?" 바라문이 대답했다. "마땅히 소와 말, 돼지, 양 100마리를 준비해 그것을 죽여 천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야 병환이 낫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 말, 돼지, 양 100마리를 가져오게 해 제단에 나아가 천신에 제사 지내도록 했다.

이때 부처님이 큰 자비심으로 왕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엾게 여기어 왕에게 찾아갔다. 왕은 멀리서 부처님을 보고 예배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머님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래됐기에 천신에게 제사지내 어머니의 병이 낫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말하기를 "곡식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밭에 씨앗을 심는 일을 해야 하고, 큰 부자가 되고자 하면 마땅히 보시를 행해야 하며, 장수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큰 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학문을 닦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일은 그 심은 씨앗에 따라 그 과실을 얻는 것이다. 천신에 제사지내는 것은 음란한 일로 사악한 것을 바른 행위라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죽여 살기를 구한다는 것은 살아남는 길과 더욱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100년 동안 신을 받들어 섬기며 소와 양을 희생 삼아 제사지내는 일은 자비를 행하는 일만 못하다."

부처님은 법문 후 몸에서 광명을 방출해 두루 하늘과 땅을 비췄다. 왕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광명을 눈으로 보고는 도의 자취를 얻어 부끄러워하며 허물을 뉘우쳤다. 천신에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왕의 어머니도 이 소식에 심정이 흐뭇해져 앓고 있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하목 왕은 삼보를 믿고 공경해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항상 10선도를 행하니 나라에는 오곡이 풍성하게 풍년이 들고, 마음은 항상 흐뭇하고 즐거웠다.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세상 모든 원인은 자신이 심은 씨앗에 따라 그 과실을 얻게 되는 것이지 하늘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사천우불(祀天遇佛)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허허당의 세상만사

■ 만행일기(수좌)



오늘은
천년 묵은 고목 나무의 뿌리처럼
오랜 세월 고독한 영혼으로 홀로 서 있는
목이 긴 학이 되어
푸른 하늘 맨 끝을 쪼고 싶다.
아, 나는 바람의 살로 옷을 입고
시린 달빛 걸음으로 방황하는 별이 된다
지친 은하수의 계곡을 넘어.

모 불교문화원 범음·범패, 불화, 단청 신입생 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 법체청안 하옵기를 축수기원 합니다.
금번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공 통

소 리 : 종성, 거불, 복청게, 천수태징타법, 도량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바 라 : 요잡, 천수바라, 사다라니, 화의재바라
나비춤 : 도량게, 다게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범음대 출신)

≪불화,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긋기, 뎃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금, 달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종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해 서울과 부산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서울지역 강의 (장소 : 서울 조계사 근처)
   - 개강일시 : 9월 4일 (목)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강의 (장소 : 부산 초량동 부산컴퓨터과학고 정문 앞)
   - 개강일시 : 9월 6일 (토) 오후 1시 30분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3. 교육내용

①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4. 신청방법 : 전화접수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신분증 사본)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보은사 석가모니후불탱화


보은사 신중탱화


보은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자기 마음을 밝히면 조상과 둘 아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조상 때문에 후손이 고통 받는 문제

문 조상님들 중에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들어 꿈에도 자주 보이고 집안 식구들이 기운을 못 차리고 힘이 들어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 백종 때 조상님을 위해서 등을 밝히고 정성을 들이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해서 등 접수도 하고 절에 참석해서 정성도 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님들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을는지요?

답 여러분은 혹시 덕산 스님이 떡 파는 노파에게서 "스님은 어느 심에 점을 찍으시려오?" 하는 말을 듣고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어떤 분이 내게 '삼세심 불가득(三世心不可得)'이 뭐냐고 묻더군요. 스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겠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말로 해서 대답을 듣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뜻이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준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날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데 이 도리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게 그대로 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덕산 스님의 수행이 좀더 익었더라면 "내가 어느 심(心)에 먹는가를 보고 싶거든 떡이나 가져 오시게." 하고 말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느 심에 내가 먹는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 드릴 테니 떡이나 가져오시오."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덕산 스님은 여여하게 대답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또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이라고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니 방금 전이니 하는 것도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이 금방 과거가 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 우리 몸뚱이에서 정맥 동맥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 숨쉬는 것, 한 발짝 떼어 놓았으면 또 한 발짝 떼어 놓는 것, 이런 걸 누가 하고 있는가? 그걸 실질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말로만 알았지 실천을 통해서 감응이 되질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 잘되는 것은 어느 틈에 잘됐는지도 모르고, 잘못되면 또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니까 '이거 조상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부모가 잘못됐나, 남이 뭘 어떻게 해서 잘못됐나. 그놈이 그렇게 해서 잘못됐지.' 이러곤 이것이 다 남의 원망이고 증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오나 원망을 왜 하게 되느냐. 그것을 각각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옳게 못 보고, 나쁜 것도 옳게 못 보고, 좋은 것도 옳게 못 보고 진리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증오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생각 한생각을 잘못하는 게 그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증오하고 자기 멋대로 원망하고 자기 멋대로 괴롭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아주 속상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꼬부장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이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공을 던지지 않았다면 공이 튀어오지 않듯 자기는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대로 바로, 과거가 따로 없이 미래가 따로 없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어떠한 것도 그 오온(五蘊)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볼 때는 다섯 개가 이렇게 뚜렷하지만 주먹을 쥐었을 때는 한 주먹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한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바로 한세상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이라면 좀더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원 불생불멸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불심을 좀더 돈독하게 가지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니 오늘,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나 자식을 위한다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닥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둘 아니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섭류를,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지고, 바뀌지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식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하거나 욕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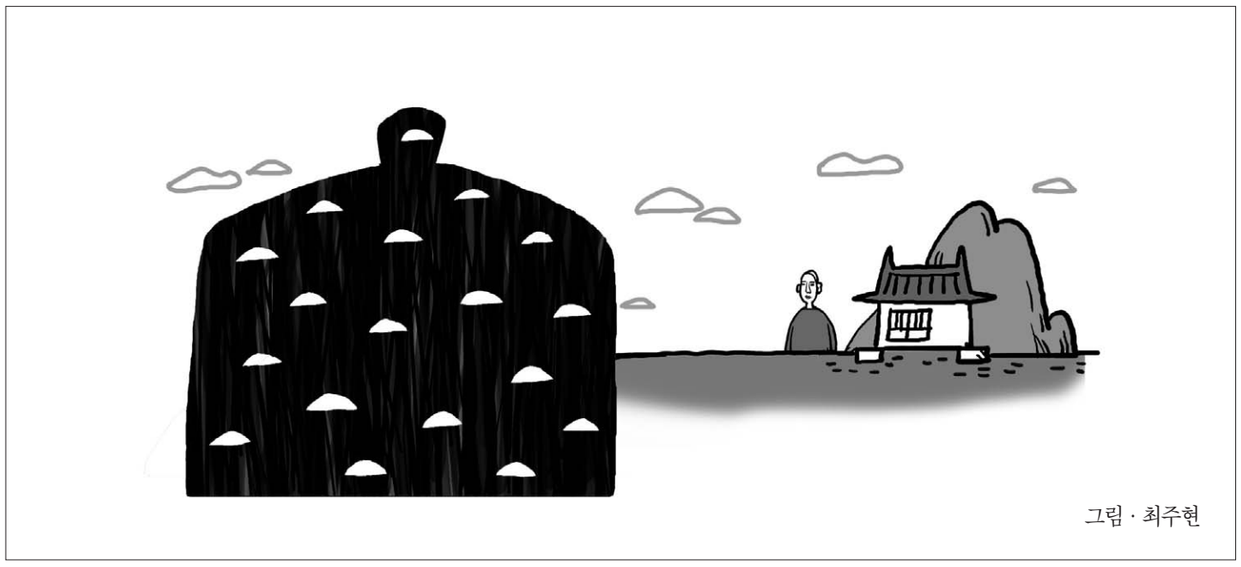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식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문 저는 『한마음』이라는 책을 읽어 보고 큰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5월 14일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애가 굉장히 놀라고 심기가 많이 불편해 가지고 사경을 헤맬 정도였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 봤는데 병명이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 인(因)으로 인해서 자식이 받는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의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답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금은 금대로 놓고, 또 쇠는 쇠대로 놓고, 은은 은대로 놓는다고요.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두 모아 놓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엮어진 겁니다. 보는 사람도 그런 죄, 또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하고 그 당하는 사람하고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부딪치는 거는 깡통이기 때문에 부딪칩니다, 둘이 아니게. 끼리끼리 그렇게 은연중에 인과로 인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인과응보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놔라, 이 우주 천하에 직결돼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돼 있는 것을 알고 그 직결돼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 병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데다가 다시 놓아라. 바로 네게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고쳐라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놔라 이 겁니다. 너만이 고칠 수가 있다.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에서 고쳐라 이거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오다가 엎어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서 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고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지어 놓은 거니까 당신네들이 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 인과응보로 졌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또 업보가 많고 자기가 저지른 많은 일들의 인과응보가 다 스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 몸뚱이 속에, 대뇌 속에, 이런 모든 생명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공급을 해 주고 잘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다 이런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데에 우리가 참, 노력을 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럼 일체 만법, 작든지 크든지 용도에 따라서 내가 다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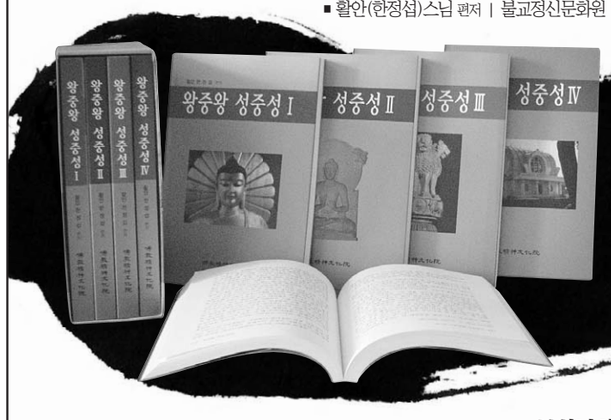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 활안 스님

'왕중왕 성중성'
王中王 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활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 활안(한정섭)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구입문의 :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 및 기초참선 수강생 모집안내

◆ 제 27기 선하불교대학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신행생활로 하고 있는 일반불자들 까지도 불교교리는 방대하고 심오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불교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 교리, 사찰예절, 기도 및 참선수행 등 불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됩니다.

- 법사 : 혜거 큰스님
-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 및 일반불자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2시
- 회비 : 14주에 6만원 (점심공양 제공)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제 13기 기초참선 과정

참선을 처음 접하거나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입니다. 앉는 법부터 단계적인 지도로, 강의 · 좌선실수 · 묵언 · 지관겸수 · 생활선 · 간화선 연습을 통하여 누구나 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법사 : 혜거 큰스님, 지도법사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08시 – 10시
- 회비 : 20만원 (14주)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1매

◆ 문의 및 안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 팩스 02)445-8043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

buddhanews.com

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17면에서 계속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태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태초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화두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화두지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

전력이 오고 감이 없이 와서 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설된 줄이나 저런 거는 다 볼 수 있을지언정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오고 가는 건 못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연히 알아서 지혜롭게 마음의 자비를 그대로 중용하셔서 실천으로 궁행하시도록 하신다면 과거에 지워진 것들도 다 녹이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에 치우치는 것 아닌지?

문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마음 공부가 어떻게 보면 체계도 없고 용(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질문에 대해서 스님의 답변이 상대에 따라서 다르시고 주인공을 믿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측면을 경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용에 치우치게 보인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답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를 종합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애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모시고,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첫번에는, 당신의 주인공이 있으니깐 주인공이 이끌어 가고, 주인공에 의해서 생각이 나고 주인공이 당신을 형성시켰고, 당신의 주인공이 운전수와 같이 당신을 끌고 다닌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으로 '내가 이럭할까요 저럭할까요.' 하고 나한테 묻지 말고 꼭 당신의 주인공에 맡겨 놓고 오관을 통해서 이 세상 판단을 해서 딱 결정을 해서 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그대로 용입니다. 그러면 용을 가르치고 마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참선을 가르치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한데 포함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얼마입니까? 애든 어른이든, 늙었든 젊었든 간에 이 모습이 없으면 도대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을 아는 거, 부닥침을 아는 거 뜻을 아는 거, 이 여섯 가지의 문제를 다 여러분은 살아 있으니깐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 있지 않고는 그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그냥 동시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벙벙하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편리한지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즉 말하자면 용은 바로 마음에서 용이 나가는 거고 마음이 있기 이전에는 바로 참나가 있기 때문에, 삼합이 한데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용이다 마음공부다, 참선이다 좌선이다 할 게 따로 없다 이 소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도 두 가지, 세 가지 얘기를 하죠. 근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 이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모든 일체를 이끌어 가는데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당신 마음 나오는 대로 해."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당신이 알아서 하지, 왜 날더러 물어?" 이렇게도 합니다. 이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한다면 전체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내 몸을 이끌어 가고, 내 모든 전체를, 사회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거기에 모두 달렸다는 겁니다. 아주 묘한 뜻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딴 스님네하고 다르게 가르친다 이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급하면 급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해결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해결이 되고 안되고, 요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해결을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해결을 못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그게 뜻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의 뜻을 한데다 떨어트린다면 여러분은 한생각에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이 이루는 것만 도가 아니라 능력을 기르면 내가 용을 하는 건 스스로 부수적으로, 그냥 그대로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용을 일부러 배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생각나면 움죽거려지는 것이 용인데 뭐가 그게 용을 따로 배우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했습니다. "개가 불성이 없습니까?" 하니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무슨 뜻이냐? 조주 스님이 대답하신 거는 대답을 있다고 할 때는 없는 거하고 포함해서 한 거고, 또 없다고 했을 때도 있는 거하고 포함해서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은 그대로 법이니라, 여여하니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부모가 계신데 "어머니, 저 어린앨 낳고 피비린내가 있고 그러니깐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자식이 또 한 가지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린앨 낳아서 경사를 봤으니깐 제사를 더 잘 지내야죠." 그러니깐 "아유, 그렇고말고!"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거는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거부를 하고 "얘, 그럭하지 마라. 이럭해라." 하면 그 자식들이 더 곤란할 거고 그 도리를 몰라. 스스로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부모의 돌아가신 날을 음미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린애를 낳아서 부정이 있고, 어린애 안 낳았으니깐 부정이 없고, 무슨 그런 게 어딨습니까? 자기의 정성입니다, 그게. 그것이 근본,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깨끗한 자식으로서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향 한 개비와 불 하나를 켜 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정성이다 이겁니다.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주 스님도 그렇게 양면을 다 그렇게 허술하게 체계 없이 말을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참선에는 체계가 있어서는 선이 아닙니다. 체계가 없이, 체계가 없는 것이 즉 참선입니다. 체계가 없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진실한, 지금 해 나가는 여여함이 그대로 바로 참선이요, 행이요, 용인 것입니다.

> **선과 악을 놔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놔라!**
> **놔야만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이겁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문 80여일이 넘게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새로운 정권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일본과 미국과도 연관된 독도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리 사회가 조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까요? 이러한 시국에서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답 우주 만유를 창조하여 나가는 그 인과 필연의 법칙. 우리의 몸과 생명, 정신 작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전되고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불도 중생도 이 모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볼 때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 이라고 있습니다. 오종대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종대은이라는 뜻은 일체제불의 종지를, 즉 말하자면 모든 우리들의 생명의 씨, 불씨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알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알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즉 말하자면 우리를 인솔해 나갈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못하든 잘하든,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잘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지 잘 이끌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행입니다.

그와 같이 '그 뭐 대통령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 이러지만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각 나라의 임금과 임금이 접하듯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회의를 할 때도 내 나라를 중요시하지 남의 나라를 중요시 안 합니다. 그리고 내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든지 마다 안 하고 하는 그런 계기는 있다고 봅니다. 또 부모의 은혜, 낳고 길러 주고 가르치고 그랬건만 머리털이 새어서 죽을 때까지 내내 마음고생을 있는 대로 시키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면 아니 되기 때문에 국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사장의 은혜,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불의 은혜, 바람 · 공기의 은혜, 물의 은혜 모두가 감사함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둘 아닌 도리를 얼른 납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인연에 따라서 활짝 개이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대로 이끌리기도 하죠. 이 몸뚱이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대로 이끌어 주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대로 이끌어 주는 그런 수십억의 중생들이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또는 경을 달달 외워서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참선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렁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화두요, 나 자체부터 알 양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는 거와 같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관계상 인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만남이, 교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또는 '이것이 안된다, 된다' 하고 야단법석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아이고! 이 나라가 이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해서야 나라가 잘될 수 있어?' 이러지마는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적인 원리로써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禪)이다' 그런다면 이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인연에 따라서 딱 붙이면 즉, 전선줄과 전선줄을 한데 붙이면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이 들어오는 그 광명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건데 양면의 이 줄을, 갖다 붙이는 줄을 가지고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하니까 그래서 '놔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놔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놔라. 놔야만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는 움쭉도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주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은하계의 중심도, 태양계의 중심도, 이 우주의 중심도, 이 인간의 중심도 모두가 중심은 하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지구로, 모두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뒷면에서 나오죠, 중심 뒷면에서. 우리가 마음의 샘터다 하는 것도 모두가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이 마음의 샘터에 샘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누구나가 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쓸모가 없어.' 그러고 그냥 다 내치면 아예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산 송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동안에 의욕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얼굴이 좋아지고, 다복해지고,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 하나로부터 큰 우주의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어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나를 죽여서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또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도리를 알아야 하고,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일체제불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무직 모집

경기도 일산 소재 사찰입니다.

불심이 견고한
사무직 직원 (남 · 여 각 1인)을
모집합니다

영가 봉안 천도 도량을 참고하세요.

※ 사찰에서 숙식 환영

전화 **031)901-195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장 안 사

입종안내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종 정	청암	부 종 정	화주
총무원장	지공	원로의장	청해
감사원장	만봉	종회의장	보광
교육원장	지원	종회부의장	관불
사정원장	일현	종회의원	진광
호법원장	거송	포교원장	원각
문화원장	덕호	복지원장	법성
총무부장	석문	재무부장	지호
감찰부장	지인	홍보부장	도일심
문화부장	용기	의전부장	혜오
섭외부장	성화		

- 각 지역구 종무원장을 모집합니다
- 스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실 행자님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총무원 : 울산 북구 정자동 175-1번지
전화 052)293-7328 핸드폰 011-556-5507

불교범패작법전수원 2008학년도 후기
수강생 모집

귀의삼보 하옵고, 사중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오며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재, 49재, 사물(태징, 북, 목탁, 요령)다루는법 등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불교의식을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기초재의식반**
▹수 업 일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3시**
▹수업내용 :
기초반 –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청, 아침송주 등
재의식반 –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구명시식
작법 – 바라춤:요잡바라,화의재바라,관욕바라,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 나비춤:사방요신,도량게,다게,옴남,운심게
▹수업기간 : 1년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목탁, 요령, 바라
▹개 강 일 : **8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재의식전문반**
▹수업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업내용 :
범패 – 겉채비, 안채비, 짓소리(소리와 태징치는법 위주로 강의)
작법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명바라,관욕게바라,화의재바라,
법고무,도량게,다게,운심게,옴남,모란찬,기경이,구원겁중,
오공양,육법공양,향화게
▹수업기간 : 6개월(기초의식을 필한자)
▹준비물 : 필기도구, 녹음기, 태징, 바라
▹개강일 : **8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문의전화** : 033)731-7759 / 011-269-4168

송원사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문막 I.C~문막방향 3분거리)

한국불교여래종
입종안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사진(여권용)4매
3.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약의 감옥

아직 기대하긴 이르나, 귀찮아 움직이기는 싫고, 그래도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해야 하고, 그런 '귀차니스트'들을 기쁘게 할 '기적의 약'이 멀지 않아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운동하지 않고도 운동한 효과, 즉 칼로리 소비량을 늘리고 지방을 줄여주는 약을 개발 중이며, 이미 쥐 실험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한다. 이 약이 실용화된다면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달리 비만걱정을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약 한 알 먹고, 그냥 누워 빈둥거리며 삶을 즐기게 된다?

인류의 먼 먼 조상이었던 석기시대 사람들에게 '귀차니스트'가 있었을 리 없다. 그때 만약 어느 누가 '귀차니스트'가 되었다면 엄혹한 자연과 맹수들, 아니면 동족으로부터도 진작 퇴출당했을 것이다. 그러니 현대인류 조상 가운데 '귀차니스트' 유전자를 가진 분은 없었을 터. '귀차니스트'란 현대문명이 만들어 낸 특별한 증상을 가진 인간군을 이르는 말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귀차니스트' 증후군을 '운동하지 않고도 운동한 효과를 준다'는 약으로 치료하겠다 한다. 이야말로 '약 만능시대'적 발상이다.

눈부신 의료기술 발달과 육체적 질병의 치료약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는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약' 만능 사고가 과연 옳은 것인가는 한번 짚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약물시장의 규모는 어느 산업에 비해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새로운 신약 하나가 인기를 끌게 되면 순식간에 세계시장을 정복해 버린다. 질병 아닌 회춘약이 되면 더욱 그렇다. '보이톡스(boy+botox)'신드롬이란 말까지 만들어 낸 약 '보톡스'는 주사 한대로 얼굴 주름을 다림질하듯 쫙 펴 주므로 노년세대뿐 아니라 중년세대까지 애용자가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중화되었으면 '보톡스'를 치약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 예상하겠는가.

의사들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노인성 질환에 비록 검진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치료 수준은 아닌, 적은 량의 치료약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몇 년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 런던의 템즈 강물에서 우울증의 대표적 약물인 프로작 성분을 상당량 검출했다 한다. 영국의 흐린 날씨와 안개 등 기후적 영향뿐 아니라 산업화 이후 증가한 영국의 우울증 환자들이 항 우울증 약물인 프로작을 차 마시듯 복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약물 의존증은 이제 '약의 감옥에 갇힌 인간'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한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얼마간의 육체적 질병 아닌 신경성 모든 질환에 해당되는 병의 원인은 분명 마음에서 온다.

현대에는 그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 많다.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여러 신경성 질환이 여기 해당될 듯싶다. 어쩌면 권태와 함께 '귀차니스트 증후군'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 마음에서 오는 질병조차 약물에 의존하려는 것이 오늘의 '약 맹신'경향이다.

지난 세기 대마초와 각종 마약을 흡입하면서 명상의 나라 인도로 달려가던 미국의 히피들은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를 쉽게 약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나중에라도 그것이 착각임을 그들이 알아채기나 했을까?

마찬가지로 지구의 초자연적 비밀을 곧잘 밝혀낸다고 알려진 미국의 저술가 그레이엄 핸콕은 그의 저서 '슈퍼내추럴'이라는 책에서 마약 류야말로 영혼을 고양시키고 초월적 존재와의 교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라 했다.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바라문교의 비약으로 알려진 '소마'를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마음에서 비롯된 병은 약물이 아닌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마음에서 오는 모든 질병 치유책에 다름 아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인을 '약의 감옥'에서 구해내는 일도 불교의 몫이다.

"너 누구 만나기는 하니?"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⑯ 부처님 마음과 결혼하기

결혼이 뭐길래

"고르긴 뭘 골라, 남자만 있으면 무조건 시집가야지!" 작은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소리 질렀다. 박양은 기가 막혀서 자기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작은 엄마에게 화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양의 어머니는 맏며느리였고 아래 동서와 시누이들이 있었다. 박양의 아버지는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편이었는데 동생인 작은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다. 박양의 아버지가 여러 번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작은 엄마는 가끔 박양의 집에 와서 음식이나 물건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곤 하였다. 박양이 보기에는 당연한 듯이 "너희 집은 잘 살고 형님 댁이잖아. 동생네 좀 도와줘야지"하는 태도였다. 그렇다고 제사나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작은 엄마가 돕는 것도 아니었다. 일 많은 제삿날은 특히 절대 일찍 오는 법이 없었다. 박양은 화가 났지만 신실한 불자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양과 그 집 딸은 동갑이었다. 둘 다 결혼하지 않고 서른을 넘기자 집안 어른들이 걱정이 많았다. 박양은 선을 여러 번 보았는데 잘 되지 않았다. 서른 셋이 되던 어느 날, 작은 엄마가 들어오며 "형님, 우리 00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며 소리질렀다. 무슨 전쟁에 승리한 사람 같아 보였다. "결국 우리 애가 먼저 가게 됐네요! 아, 글쎄 사위가 박사인데 집안도 좋고"하며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자기 마음만 바로 써라

그 때부터 시달림의 시작이었다. 말끝마다 사위 자랑이 빠지는 법이 없었다. 정해진 것처럼 "아유, 형님네는 언제 사위 보나요, 큰일이네." 하는 말로 끝났다. 박양만 보면 "너 언제 시집 가냐?"고 해서 스트레스를 주었다.

한번은 "너 누구 만나기는 하니?"하였다. 박양은 "아니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하였다.

옆에서 어머니도 "글쎄, 남자가 좋다고 해도 얘가 싫다고 하고, 조건도 맞아야 되니" 하였다. 그 순간 작은 엄마는 큰소리로 "아니, 그렇게 나이 들어서 고르긴 뭘 골라!"하였다. "아무나 남자가 좋다면 무조건 가야지. 지금 이것저것 따지게 되었나!"

박양은 기분이 팍 상했다. 어쩌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다. 자기 딸이라면 아무하고나 가라고 하겠는가. 섭섭하고 화가 나는데도 어머니는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작은 엄마 너무하시잖아요! 엄마는 왜 야단도 안 치세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듯이 "남에게 뭐라 할 것 없다. 모두가 자기 한 대로니 자기마음만 바로 하면 돼." 그러나 박양은 작은 엄마가 너무 야속했다. 빈 말로라도 괜찮다, 좋은 사람 만날 거다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모르는 남에게도 저렇게는 안 하겠네.

해가 바뀐 후 문득 몇 달 간 작은 엄마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작은 엄마 요즘 안 오시는가 봐요."하고 물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응, 00(그집 딸)가 이혼했거든." "네? 정말요?" 사정을 들은 후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갔다. "엄마, 걔가 이혼한 게 석 달 전인데 이제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으니까 말하지 뭐 좋은 일이라고 굳이 말하겠니."

평생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엄만 그동안 작은 엄마한테 당한 거 화도 안 나세요? 그런데 걔가 이혼을 했다니. 미안하지만 난 왜 이렇게 통쾌하지." 그동안 시달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이제 자랑할 게 없어서 안 오시나요?" 어머니는 놀라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해 주고 힘든 일은 내 일처럼 자비심을 가져야 돼. 더군다나 가족끼리는 같은 인연이야" 어머니는 "난 그 애나 너를 위하는 마음이 똑같아. 절에 가면 우리 가족과 똑같이 그 집 축원을 올리고 기도한다. 지금 그 애와 작은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니" 박양은 어이가 없었다. 우리가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엄마는 관세음보살이야.

"엄마, 제가 시집 잘 가서 효도할게요." 그전에는 그래, 하던 어머니가 오늘은 달랐다. "시집만 간다고 잘 사는 거니. 그보다 너도 절에 다녔으면 해." 어머니는 어느 새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박양은 깜짝 놀랐다. "너 내가 맏며느리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온 줄 모르지. 너의 진짜 주인인 부처님 마음과 먼저 결혼해라. 그럼 평생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을 거야. 결혼하든 혼자 살든 중요한 건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박양은 얼마 전부터 절에 다니게 되었다. "아직 불교 잘 몰라요. 우리 엄마 때문에 완전 항복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구를 나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처럼 사는 게 부처님 마음이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종교편향, 종교인의 얼룩진 자화상

2008년 상반기 불교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는 '종교편향'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은근히 염려했던 일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면서 불교계는 공공기관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의 실체들을 당면해야 했다. 대책수립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는 가운데 급기야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비상식적인 검문이 이루어져 분노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장마 뒤의 폭염보다 뜨거운 불교계의 분노를 이제야 인식한 정부와 정치권은 미지근하나마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응은 두 가지 양태다. 하나는 법적인 장치를 튼튼하게 마련하라는 불교계의 주문에 대한 반응이다. 또 하나는 종교편향 사건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다.

사실, 종교라는 순수한 측면에서 볼 때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종교가 얼마나 순수하지 못하고 가르침(진리)으로부터 이반되었으면 사회법을 통해 종교의 권위와 신성성을 지켜야 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종교도 이웃을 해치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교세확장을 위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종교편향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일상어로 회자될 만큼 이웃종교에 대한 '오만과 무례'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조계종에 보낸 회신서를 통해 "종교편향행위에 대한 법적 장치 보강문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듯이 매우 미지근한 입장이다. 뭔가 거창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결론이 나기에는 매우 요원한 시간의 거리가 느껴지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조문환 의원이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장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둔 상태다. 아직도 원구성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국회가 얼마나 성의 있게 이 법안을 다룰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생각할 때 이 개정안은 반드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법적 장치를 위한 반응과는 달리 인사문제와 관련한 조치는 불교계의 성난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 종교편향 사례의 당사자면서 총무원장 차량 검문 파문의 최종 지휘책임자이기도 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형식적인 유감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어청수 청장 본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불교계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쉬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

불교계는 8월 23일 대규모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산문 밖에서 촉발된 각종 편향 사례로부터 교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법회는 불교계가 원하는 바도 아닐뿐더러 종교인 스스로의 얼룩진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누가 이런 법회까지 열게 했는가를 깊이 고심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귀한 시간 수행과 신행의 현장을 떠나 종교편향 방지를 목 놓아 외쳐야 하는가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종교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이 법회를 촛불문화제 정도의 시위성 법회로 규정하지 않길 바란다.

학 인 모 집

영남 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7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안 내

◆ 입교일시 : **2008년 8월 28일(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관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일반불공의식 및 재의식
1. 각종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 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 한 출가 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 011-867-8419**(원장 원명스님)

영 남 범 패 불 음 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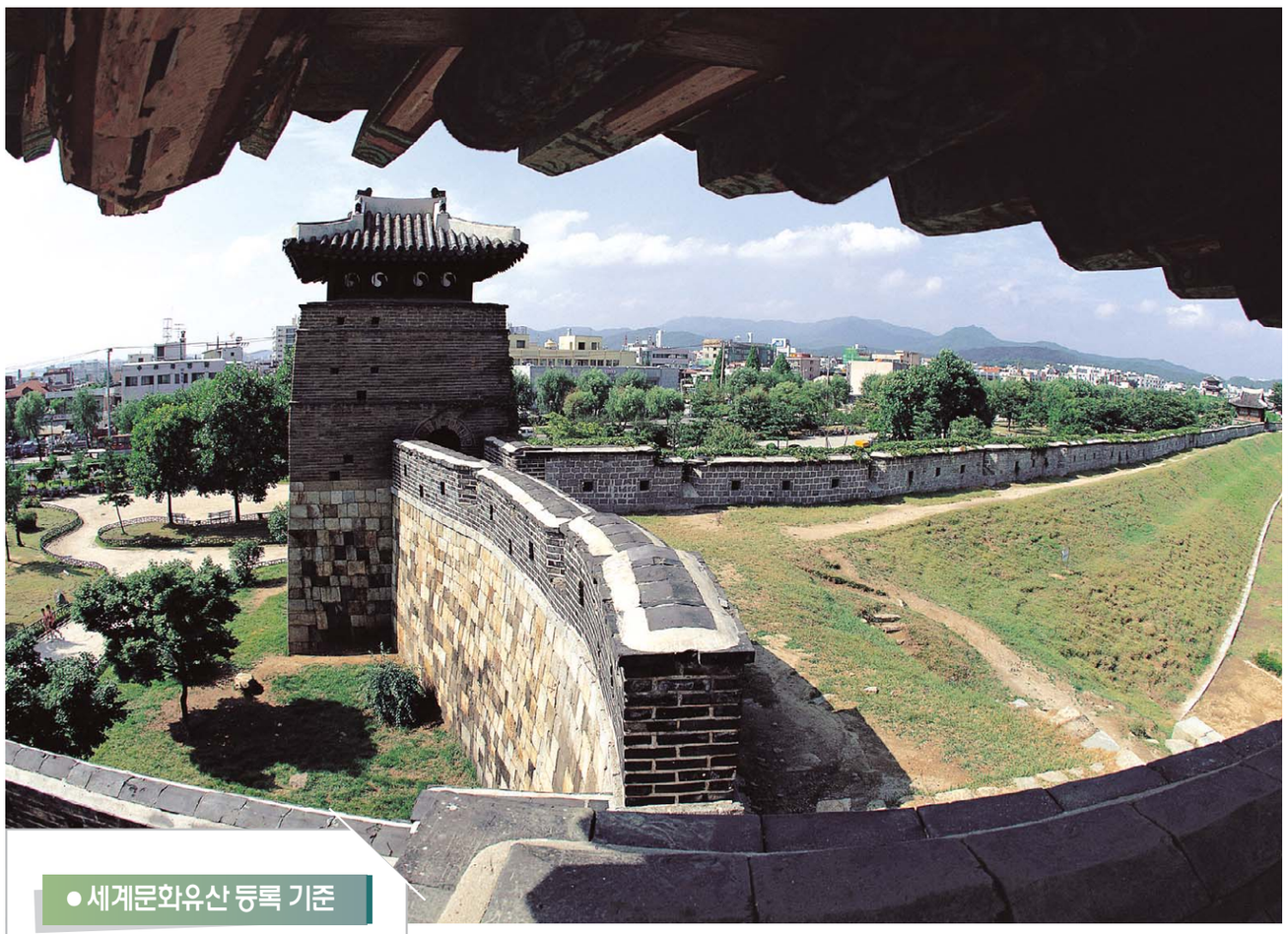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孝사상·왕도정치 포부 문화·철학적으로 승화







화성서북공심돈(왼쪽) 화성 팔달문(오른쪽 위). 화홍문.

수원화성, '동양성곽의 백미' …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화성행궁, 정조가 능원 참배당시 머물던 대표적 행궁

50 정조의 건릉 <2>

융건릉, 수원 화성과 행궁 그리고 용주사는 정서적으로 한 덩어리다. 정조의 혼과 열정이 담겨 전해지는 곳이다. 답사의 방향을 수원으로 잡았다면 이 세 곳을 필히 둘러보아야 한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다. 아울러 수도 한양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도 내포되어 있다.

수원화성은 규장각 문신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만든 <성화주략>(1793년)을 지침서로 하여, 재상을 지낸 영중추부사 채제공의 총괄 아래 조심태의 지휘로 1794년 1월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 완공했다. 축성 시에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장비를 고안하여 사용했다.

성벽에 필요한 장대한 석재 등을 옮기고 쌓는데 이용했다. 이러한 장비는 공사기간의 단축, 인부들의 노력과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화성 축성과 함께 부속시설물로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소멸되고 현재 화성행궁의 일부인 낙남헌만 남아있던 것을 최근에 복원했다.

수원화성은 축조이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성곽의 일부가 파손 · 손실되었으나 1975~1979년까지 축성직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여 대부분 축성 당시 모습대로 보수 · 복원했다.

성의 둘레는 5744m, 면적은 130ha로 동쪽지형은 평지를 이루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있는 평산성 형태다. 성의 시설물은 문루 4, 수문 2, 공심돈 3, 장대 2, 노대 2, 포(鋪)루 5, 포(砲)루 5, 각루 4, 암문 5, 봉돈 1, 적대 4, 치성 9, 은구 2등 총 48개의 시설물로 일곽을 이루고 있으나 이 중 수해와 전란으로 7개 시설물(수문 1, 공심돈 1, 암문 1, 적대 2, 은구 2)이 소멸되고 4개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수원화성은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북수문(화홍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현재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도시 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년 전 성의 골격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축성의 동기가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 · 경제적 측면과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성곽자체가 '효' 사상이라는 동양의 철학을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 외에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가지는 성이다. 수원화성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 성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성벽은 외측만 쌓아올리고 내측은 자연지세를 이용해 흙을 돋우어 메우는 외축내탁의 축성술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곽을 만들었다. 또한 수원화성은 철학적 논쟁 대신에 백성의 현실생활 속에서 학문의 실천과제를 찾으려고 노력한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벽돌과 석재를 혼용한 축성법, 현안 · 누조의 고안, 거중기의 발명, 목재와 벽돌의 조화를 이룬 축성방법 등은 동양성곽 축성술의 결정체로서 희대의 수작이다. 특히, 당대학자들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동서양 축성술을 집약하여 축성하였기 때문에 건축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축성 후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성곽축성 등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크다.

수원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공심돈 등이 있다.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나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르다.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전란(戰亂), 휴양, 능원(陵園)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로 마련한 임시 궁궐을 말한다.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위급함을 피하고 국사(國事)를 계속 하기 위해 마련된 행궁으로는 강화행궁, 의주행궁, 남한산성 내의 광주부행궁 등이 있고, 온양행궁은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궁으로 조선 세종 이래 역대 왕이 즐겨 찾던 곳이다. 대통령도 별장이 필요할 터인데 권위주의 타파, 특권 파괴의 분위기에 휩쓸려 없앴다. 청남대는 관광지가 되었다. 다만 '안가'라는 곳은 있는 모양이니 그건 눈감아 주자.

왕이 지방의 능원(陵園)에 참배할 때 머물던 행궁이 바로 화성행궁이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륭원으로 이장하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축조했으며 1790년에서 1795년(정조 14~19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중요 경유지에 과천행궁, 안양행궁, 사근참행궁, 시흥행궁, 안산행궁, 화성행궁 등을 설치했다. 가히 편집증적인 효성이다. 그 중에서도 화성행궁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뽑히는 대표적인 행궁이다.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화성부 유수(留守)가 집무하는 관청으로도 활용했다. 정조는 1789년 10월에 이루어진 현륭원 천봉 이후 이듬해 2월부터 1800년(정조 24년) 1월까지 11년간 12차에 걸친 능행(陵幸)을 거행하였다.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했다.

정조가 승하한 뒤 순조(純祖) 1년(1801) 행궁 옆에 화령전(華寧殿)을 건립하여 정조의 진영(眞影)을 봉안했다. 어전에서 입는 복장이 아닌 군복 입은 진영이다. 드라마 '이산'에서 궐밖 나들이할 때 정조의 복장은 이 진영을 참조하여 복원했다. 그 뒤 순조, 헌종, 고종 등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다. 화성행궁은 성곽과 더불어 단순한 건축 조형물이 아니라, 개혁적인 계몽군주 정조가 지향하던 왕권강화정책의 상징물로 정치적, 군사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준

- ☑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할 것.
- ☑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 ☑ 독특하거나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 ☑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 ☑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 · 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 ☑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현재 한국에는 유네스코에 심사를 거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으로는,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 역사지구,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등이 있다. 조선 왕릉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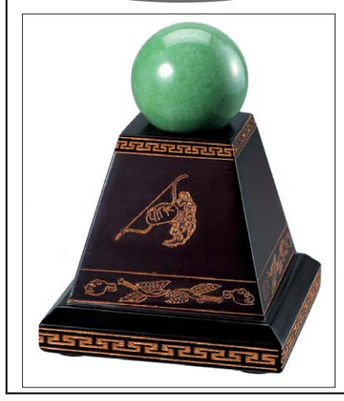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